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Itinerant missionaries, mission and ministry of the Bible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D.Miss)

Paul G. Ku (구경평)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Itinerant missionaries, mission and ministry of the Bible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D.Miss)

Paul G. Ku (구경평)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Itinerant missionaries, mission and ministry of the Bible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D.Miss)

Paul G. Ku (구경평)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Itinerant missionaries, mission and ministry of the Bible

지도교수 : 윤 건 상 박사

Advisor :

이 논문을 선교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The paper also submitted a doctoral dissertation to the Missions.

2016 년 2 월 일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선교학 박사(D.Miss)

Paul G. Ku (구경평)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Paul G. Ku (구경평)의 선교학 박사 논문을 인준함

Paul G. Ku(구경평) must approve the doctoral thesis in Missiology.

A judging committee : _____ name _____ . _____ signature _____ .

A judging committee : _____ name _____ . _____ signature _____ .

A judging committee : _____ name _____ . _____ signature _____ .

Yeshua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2016 년 2 월 일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인사의 말씀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학교 측과 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 박사님들의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 윤 건상 박사님과 심사를 맡아 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눈물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에 이르게 되는 여러 동료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사역에 있는 자로서 이번 연구 결과에 먼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운 기회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끊임없는 연구와 함께 그렇게 나 자신이 살아야 하겠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논문을 쓰기에 이르도록 말없이 도와주는 내자를 비롯하여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지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 년 2 월 일

Paul G. Ku(구경평)

목 차

제 1 장 서론(연구 동기와 목적).....	9
제 2 장 선교의 정의	19
1. 선교의 정의의 출발점.....	19
2. 선교 사역에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본다.....	27
3. 선교사가 무엇인가?.....	37
제 3 장 선교사들의 문제점.....	41
1. 행사 위주로 활동.....	42
2. 물질 공세로 인한 부작용.....	44
3. 현지 지도자 세움에 문제점.....	52
4.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54
5. 실버 선교회의 활동.....	59
제 4 장 예수님은 전도대 파송하다.....	62
1. 예수님의 12 제자 파송.....	63
2. 예수님께서서 70 명을 전도대 파송.....	65
3. 앞으로 전도대 파송.....	67
4.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69
제 5 장 선교사는 계속 성경 연구해야 한다.....	77
1. 성경을 다독하라.....	82
2. 사건별로 집중하여 정독하라.....	84
3. 성경을 외우라.....	84
4. 성경 연대표를 그리라.....	86
5. 성경 지리를 연구하라.....	86
6. 성막을 공부하라.....	86
제 6 장 선교의 현장.....	88
1.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권고하셨다.....	88
2. 사도 행적들의 사건을 본다.....	91
3. 오늘의 사도 행적들.....	98
4. 모슬림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심.....	100
5.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101
제 7 장 내가 본 예수님.....	105

1.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버렸다.....	106
2. 자신을 구할 천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106
3. 자신을 위하여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셨다.....	106
4. 자신을 위험에서 구하지도 아니하셨다.....	107
5.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다.....	107
6. 죄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은 중단하지 않았다.....	107
제 8 장 영상 선교 활동 중에 본 반응.....	110
1. 전천후 기동력.....	112
2. 상영 중단된 사건.....	113
3.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듣다.....	113
4. 영상이 온 세계에 전파.....	114
5. 보기 힘든 장면 뚫리지게 보라.....	115
6. 네팔 이야기.....	117
제 9 장 결론.....	120
편집 후기.....	125
참고도서 목록.....	128

제 1 장 서론 (연구 동기와 목적)

선교사라고 말을 한다면 해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통칭하여 선교사라고 부르는 말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온 가족을 동원하여 지시하는 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일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 뿐이다. 문화, 언어, 만남의 대상 인물 그리고 환경까지 이 모두는 새로운 일들 가운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목회 35년을 필하고 은퇴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은퇴식이 있기 전 3년 동안 힘든 고민을 하였다. 그 고민의 결론은 내가 은퇴하면 한 은퇴 노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다.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린 나는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도는 계속하는 일이지만.... 그 고민의 결과는 내가 사는 곳에서 자동차로 직접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곳은 내가 목회하면서 약 7년 동안 가끔 방문하던 곳이다. 그곳으로 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이 아니고 눈에 익은 곳이다.

가끔 만난 얼굴이기에 서로 불편하고 서먹서먹하게 대할 일이 없으니 좋을 것으로 알고 결정한 곳이 멕시코 엔세나다 이었다.

오렌지 카운티 실로암 교회(담임 목사 조창훈)에서 멕시코를 향하여 가도록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¹⁾ 그렇게 하여 일차 엔세나다를 향하여 갔다. 이곳에 이삿짐을 풀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자동차에 실려있는 짐들은 한 덩치도 내려 보지 못하고 처소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일단 첫 밤을 엔세나다에서 지내고 그 짐을 실은 자동차는 티후아나를 향하여 달려갔다. 이곳에서 간단히 이삿짐을 풀어 정리한 나는 선교 현장에서 첫 쓴잔을 마시고 눈물로 시작된 사역이었다.

❀ ❀ ❀❀❀❀❀

주 1) - 선교사 파송 받은 때 사진



이러한 경험과 다른 지역과 여러 곳에 다녀 보는 가운데 직접 본 사건과 경험한 것들을 동원하여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을 성경적인 면에서 풀어 가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도시인 Otay 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왔다. 이곳은 나의 거점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방이 마련되었다. 이곳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하나의 표시는 더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다. 즉 또 하나의 패를 받았다. 2)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협력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나에게 미국 미주 성문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에서 또 하나의 패를 주었다. 3)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교 현장에서 거주하던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겨 왔다. 그렇다고 그곳 멕시코에 있는 나의 거처지버린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거주는 미국에서 하지만 멕시코를 향하여 가면 그곳에도 나의 거처 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일이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첫 주일은 멕시코에서 현지인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매번 갈 때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토요 사역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 일이다.

기독교 영화 한 편을 보여 주면서 영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 성도들에게 가끔 가족사진을 찍어 프린트해 주는 작은 일도 한다.

이렇게 하는 세월이 벌써 10 년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경험 속에 선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의 문제점과 선교지에서 보는 문제점이 보였다.

대표적인 것은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담임자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님도 발견되었다. 설교하는 자는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주 2) – Dios es Amor 에서 준 것 사진	주 3) – 미주 성문 장로교회에서 준 패 사진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선교사가 가지고 온 물품들이 앞에 놓여있기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기다린다. 그의 마음은 설교 말씀보다 물건 나누어 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로 부터 많은 변화하였다. 그리고 많은 발전되었고, 질적 또는 양적 부흥 되어 왔다. 그런 와중에 질적 보다 양적 팽창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양적 성장이 팽창해 온 오늘에는 더 이상 양적 성장이 멈추고 쇠퇴기에 들어선 양상도 있다.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보여진 것은 오히려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이 된것이 아닌지? 열매가 없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말라 죽은 일이 있었다.^(마 21:19)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10 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멕시코시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 천만 명 중 1 천 900 만 명인 95.3%가 기독교인으로 조사됐다. 단, 멕시코의 가톨릭 교인은 89 수준이다. 100 년 전인 1910 년에는 런던이 도시 전체인구의 96%인 668 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세계 최대의 기독교 도시였다. 그러나 100 년 뒤인 오늘날 런던은 71%의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14 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에드버러대학 출판부가 발간한 2010 아틀라스 글로벌 기독교에 따르면, 이처럼 유럽 기독교인의 감소가 눈에 띈다. 1910 년 전 세계 기독교 10 대 도시 명단에 유럽은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 루르, 맨체스터(기독교인 보유순) 등 6 개 도시가 포함됐다.

그러나 100 년 뒤인 오늘날 유럽 지역에는 없다. 유럽으로 구분되는 러시아 모스크바가 9 위를 차지했을 뿐이다. 미주대륙은 상파울루, 뉴욕,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우데자네이루, LA, 보고타 등 7 개 도시가 10 위권 도시에 포함됐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마닐라가 유일하게 10 대 도시에 포함됐다.⁴⁾



주 4) – 복음 기독 신문 2011 년 6 월 28 일자 기사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수많은 성도가 동시에 한곳에 앉아 있다. 강단 앞에서 맨 뒷자리까지 외쳐지는 강단의 메시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중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는 만담 이야기 수준에서 청주들은 한바탕 웃고 있는 분위기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마 3:2)라고 외치시던 메시지는 요즘 찾아 듣기 힘들 정도로 사라진 가운데 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이고 강단에서 만담의 수준에 이른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 설교자는 명설교자 처럼 인기가 높다.

이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다. “강단이 텅 비었다” 또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이제는 설교 그만하시지” 등등의 말이 생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교회 설교를 비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⁵⁾

1. 오늘 나의 설교는 영력이 없고 무관하며 지루하고 잘못 전달되고 있다.
2. 설교의 곤경
3. 설교의 전성기는 이제 지났다.
4. 설교는 이제 몰락해 간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들의 비판이 잘못된 것인가? 이 비판 속에 설교의 위기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복음 선포를 위하여 강단의 설교는 힘 있고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인본주의에 의하여 사람들의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소리에 매끄러운 문장과 언변의 모습이 가득하다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이름만 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이다.

강단을 향한 비판의 소리는 현재 뜻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확실히 강단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⁶⁾



주 5) - 정장복 Clyae Roid “설교의 위기”(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P.4

주 6) - 전가화 “설교학적 두개의 갈림길과 그 과제”(감리교 신학대학 진학과 1982년 8월호)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렇다면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면 교회 내에서 맺어질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에 따라 강단의 메시지는 다르게 칠하여지고 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 7)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 8) 루터교 9) 침례교 10) 구세군 11) 등등 어느 교단이든지 각자의 독특한 교단 색깔이 있다. 이 교단 색깔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감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다. 기도와 찬송이 있다. 기도 속에는 헌신이 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하여 백성을 지었다.“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라고 말씀하심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의 3대 핵심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이다.¹²⁾



주 7) - 위클리 사전 -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 년~1791 년)는 오늘날 감리교를 설립한 성직자이다. 현재는 감리교만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에서도 비록 웨슬리의 직무를 파면했으나 그의 회심 일인 5 월 24 일을 기념한다. 그는 감리교 운동을 선도한 지도자, 목사로서 감리교의 창시이자 동시에 직무 파면된 영국 국교회 성직자의 신분이 유지되었다.

주 8) - 인명사전 - 칼빈은 루터보다 20 년 후에 출생했다. 그는 프랑스의 소도시 노용에서 출생. 칼빈이라는 이름은 코방(cauvin)이라는 프랑스 성을 라틴화 된 칼비누스(calvinus)에서 다시 프랑스화 된 것이다. 부친은 당시 노용의 주교관에서 봉직하고 있었다. 14 세 때에 파리대학에서 신학 공부. 부친의 권유로 신학을 중단하고 법학을 공부. 이 기간에 당시의 인문주의적 교양을 배웠다. 에라스무스에게 정확한 저작을 위한 정열을 배웠고, 몽테뉴에게는 문필의 훈련을 쌓았다. 1533 년 파리대학의 학장인 니콜라스 호프의 취임연설 원고를 초안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파리의 성직자들을 공격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신학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칼빈은 이리저리 방랑생활을 하다가 스위스의 바젤에 도착했다. 바젤에서 칼빈은 유명한 (기독교강요)를 저술했다. 1536 년 제네바에서 뜻하지 않게 파렐을 만나 종교 개혁에 참가하게 되었다. 1542 년 신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규칙에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선이방법과 교회의 운영 방법까지 규정했다. 여기서 근거하여 장로교회가 형성되었다. 쥘네브는 오랫동안 유럽에 있어서 개신교의 아성으로 군림했다. ☞ 다음 페이지로 계속

☞ 종교개혁시대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더 위대 한 주석가였고 논리적 사고에서도 탁월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주 9) 루터교 - 위키백과 사전-루터교회 (영어: Lutheranism 또는 Lutheran Church) 또는 루터교는 16 세기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 교파이다. 루터교회는 스스로 개신교의 장자 또는 효시임을 자임하고 있다.

주 10) - 침례교 나무 위키 사전 -침례교는 종교개혁이 태동한 이후의 17 세기 개신교 신자중 보다 급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회가 혼합사회가 아닌 신자들만의 순수한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세기 영국에서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점차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침례회는 유아세례를 부정했고 이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상충되었다. 침례회는 불세출의 설교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목사와 같은 설교가들을 배출하면서 점차 영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그 세력은 장 칼뱅의 '예정설'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선교가 필요 없다는 기존 영국의 선교사들에 반발, 세계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세워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선교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주 11) - 구세군 홈페이지에서 -구세군(救世軍, 영어: The Salvation Army)은 1865 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개신교의 한 교파이다. 성직자를 사관, 신학교를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 또는 군우라고 부르는 등 군대식의 조직을 가진 특색있는 기독교이다.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윌리엄 부스의 사상에 따라 구세군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사회봉사 모두 실천하고 있다. 구세군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주 12) - 정선기 ; 한국교회의 두가지 실상 도서 출판 아가페 198 기독교 문화 11 월호 P45



한국 교회를 본다면 새벽기도가 355 회 주일 낮, 밤이 104 회, 수요일 52 회, 금요일 52 회, 그 외 특별집회 가정 심방 등등 엄청난 횟수의 모임에 대다수 비중은 설교 기도 찬송이다. 목사는 예배 정기 집회만 564 회나 된다.

이 가운데 전하여진 메시지에 부합되는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연결되었는가? 왜 이런 현실이 되어있는가? 특히 선교 현장에는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보이지 않는 면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본인은 보고 느껴진 것을 바탕으로 각 부분들을 잡고 논하고자 한다.

각 교단 신학교에서 또는 성경학교에서 성경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다루는 성경 연구에는 성서가 말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소리가 많이 있다. 심지어 같은 한 성경 구절을 들고 자유주의자, 신신학, 현대주의, 개혁주의 등등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이 다른 가운데 있다.

성경해석하는 면에서 극 소수의 각도가 차이 나게 출발하였다면 저 목적지는 어디이겠는가? 그리고 출발점에서 틀린 각도로 출발하여 한 바퀴의 원을 그린다면 제자리에 오겠는가? 조금의 오차 정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금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멀어질 것이다.

메시지 전달 게임을 해 보라 첫 메시지가 그대로 끝까지 전달 되는가? 돌아온 내용은 처음 이것과 다른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다른 것도 여러 사람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변질하기 마련이다. 글로 남겨진다고 하지만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의 마음의 가짐과 사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리고 언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지는 것도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한 일이 있다. 그것은 성경 기록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어를 인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하고는 이 언어가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남아 있지 않고 닫아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언어의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 값을 지정하여 주신 것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¹³⁾



주 13) -

히브리 알파벳



헬라 알파벳

A, α,	1.	I, ι,	10.	P, ρ,	100.
B, β,	2.	K, κ,	20.	Σ, σ,	200.
Γ, γ,	3.	Λ, λ,	30.	T, τ,	300.
Δ, δ,	4.	M, μ,	40.	Υ, υ,	400.
E, ε,	5.	N, ν,	50.	Φ, φ,	500.
ς,	6.	Ξ, ξ,	60.	X, χ,	600.
Z, ζ,	7.	O, ο,	70.	Ψ, ψ,	700.
H, η,	8.	Π, π,	80.	Ω, ω,	800.
θ, θ,	9.	Ϟ, ϙ,	90.	Ϡ, ϡ,	900.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마 5:18)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이 빠진 것이 있다든지 더하여진 것이 있다면 성경 기록은 엉망이 되는 일이 생긴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것을 보라.¹³⁾ 만일 히브리어 알파벳이 한 두 개가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이 다 틀리게 되는 것이다.

- 시편 119 편을 본다

이것은 독특한 모습을 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히브리 알파벳을 기록하고 있다. 단 옆에 히브리어로 된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려 붙인 것이다.



주 13) - 1 절 개역 성경에서는 앞에 0 이 있고, 9 절 앞에 0 이 있다. 즉 8 개의 행이 있고 다음이 또 다른 행으로 시작되는 독특한 시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 행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된 글로 기록하여 8 행을 기록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말이 8 번 기록하였다.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행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베트”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알파벳이 22 자이므로 8 행 식이니 176 절로 되어 있다.

이 시는 각 행마다 말씀과 관계되는 단어가 하나씩 있다. 말씀 윤리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이다.

25 절~32 절을 봅니다. “딸레트”로 시작하고 있다.

105 절~112 절을 봅니다. “눈”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시가 지어진 시편 기록은 주전 1,450 년~주전 500 년으로 본다.

기록 연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하나가 없어진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편의 기록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틴어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변동이 생겼음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자도 없어진 것이 없다.

☞ 다음 페이지로 계속

☞ 알파벳의 순서도 변화가 없고 지금까지 더하여진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빠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 보아야 하겠다.

- 시 111 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각행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알렙”에서 시작하여 시를 쓰고 다음 행은 “베트”로 시작하는 시를 쓴 것이다. 그렇게 하여 22 개의 알파벳이 순차대로 기록되어져 있다.

주 18) – 강의 된 주소임 성경과 과학 59♥특별하게 기록된 시편 119 장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다. <https://youtu.be/sUWmmP5gz6U>

이것을 영어로 본다면 A 자로 시작되는 시의 한행 다음은 B 자로 시작되는 시의 한행 등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10 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영문으로 비교해 본다.

- 시편 34 편을 본다.

이것은 22 절로 되어져 있다.

1 절의 첫말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는 말로 기록하였다.

두번째 절은 두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22 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 34 편이다.



만일 성서에 기록된 것에서 삭감 한다면 더하여 놓았을 때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계 22:18~19 갈 3:15) 이러한 면에서 강단의 메시지는 분명한 소리와 함께 성경에 이른 말만 외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양적으로 성장된 교회는 도전 받고있다.

설교에서 그 설교 그 자체로 부터 정립해야 할 것이다. 설교자가 전하려는 내용이 빈약하고 잘못되었다고 한다.¹⁴⁾

본 연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을 선교지 순회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하여 성경적 견지에 비추어 집중 연구 검토하여 논제 하려고 한다.



주 14) – Ronald I Parsons: “Lay Perccep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cation Boston University 1966 P184 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박사과정 연구 중에 발견된 것이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제 2 장 선교의 정의

1. 선교의 정의와 출발점

성경 전반을 살펴볼 때 선교 활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선교하라”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6 일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¹⁵⁾ 하심을 인류 번창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본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창조된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창조함을 입은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잘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인구 증가에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전수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과 함께 삶의 근본 모든 환경을 상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있는데 인간은 흠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고 한곳에 웅기종기 모여서 살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일찍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창 9:1)라고 하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들었다. 이 정보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도 되고 잊어 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주 15) - 창세기 1:27~28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관주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 2011 년 제 2 판 인쇄

결국, 다산하고 번성하기는 하였다. 인구 수는 늘어났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죄를 범하는 일도 번성하고 다산하여 땅에 충만하였다.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창 11:1~4)라고 말하던 인간은 시날 땅에서 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한곳에서 웅기종기 모여서 살려고 하였다. 이때에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었다.¹⁶⁾(“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 11:1) 하나의 언어로 사는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말로 표현 못다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자. 세계의 6,528 개의 언어 중 절반이 타민족에 대한 억압적인 언어정책과 유력언어의 문화적 경제적 흡인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유네스코 (유엔교육과 학문화 기구)가 2002 년 2 월 21 일 발표했다.¹⁶⁾ 유네스코는 21 일 '세계 모어(母語)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을 맞아 세계 사멸위기 언어 지도 보고서를 발표,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면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도구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 사멸 위기는 미국과 호주에서 가장 심각했다. 두 나라 모두 70 년대까지 시행한 언어 차별 정책이 20 년 30 년 뒤 수백가지 언어의 사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1970 년대까지 모어 사용을 금지, 수백 가지 원주민(애보리진) 언어가 사멸됐다.

미국에서도 유럽인의 이주 이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 수백 가지 가운데 150 가지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1980 년대 이후 영어만 사용토록 하는 보수주의적 분위기가 조성돼 모어들의 사멸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주 16) – 동아일보 2002 년 2 월 21 일 자 신문 기사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가장 모국어를 사랑하는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도 14 개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등 유럽에서는 50 개 언어가 사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대부분의 소수민족 언어가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아프리카도 1,400 개의 언어 중 550 여 개가 쇠퇴하고 있으며 250 개는 현저한 사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 보고서는 언어 보존의 모범사례로 일본의 아이누족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족은 80 년대 말 모어를 쓰는 사람이 8 명밖에 안 됐으나 아이누족 박물관을 개설하고 모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독려한 결과 지금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어(死語)가 살아난 경우도 있다. 영국의 코니쉬의 경우 1777 년 사멸했으나 최근 복원돼 지금은 1,000 명이 제 2 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모어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파푸아 뉴기니아로 무려 820 개의 언어가 살아있다.¹⁷⁾ 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언어가 하나이었을 때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인 헌신과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일하려고 할 때에 언어가 통하지 아니 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나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위하여 통역관을 앞세우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직접 외치는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상의 국가 언어를 미리 습득한 후에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언어가 하나일 때 좋았던 그 축복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이다.

이렇게 좋았던 언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 11:7)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었다.



주 17) – 동아일보 2002 년 2 월 21 일 자 신문 기사

그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셨다. 그 작업으로 인하여 이들을 바벨탑 쌓던 일은 중단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다.(창 11:8~9)

온 지면으로 흩어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쪽으로 가다가 지금의 베링해협을 건너온 이들이 캐나다를 거치고 미국으로 들어 왔다. 이들이 남겨놓은 유물이 있다. 그 유물을 보면 온통 노아 홍수 이야기가 가득하다.¹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담긴 인류는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내려온 것이 많이 약하여졌지만 전하여졌다.

콜럼브스는 미 대륙을 처음 발견하였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찍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인류는 온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서 지금의 베링해협을 건너서 온 이들이 미국 오하이오 주에 온 인디언들이 유물 가운데 석판 그림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져야 하는데 말과 구전으로 전하여진 정보는 퇴색되고 잊어진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남미에 태양신 숭배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은 사라진 것이다.



주 18) -인디언 석판 그림의 주제는 노아 홍수 이야기 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지구 반대쪽 아메리카에서 발견 된 것이다.

첫 번째 그림 중앙에 눈을 그린 것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은 눈이라면 눈썹을 아래로 그리는 일이 없는 일이다. 눈이 아니고 태양을 그린 것이다.

네 번째 칸에는 태양이 둥근 원으로 그려져 있다.

첫 번째 칸의 그림이 태양인데 둥근 모습의 태양이 아니다. 태양의 아래쪽을 그린것이다.

다른 석판의 그림도 같은 형태의 그림이다.

홍수 이전에 보이는 태양은 둥글게 보이지 않고 태양의 아랫부분 반쪽만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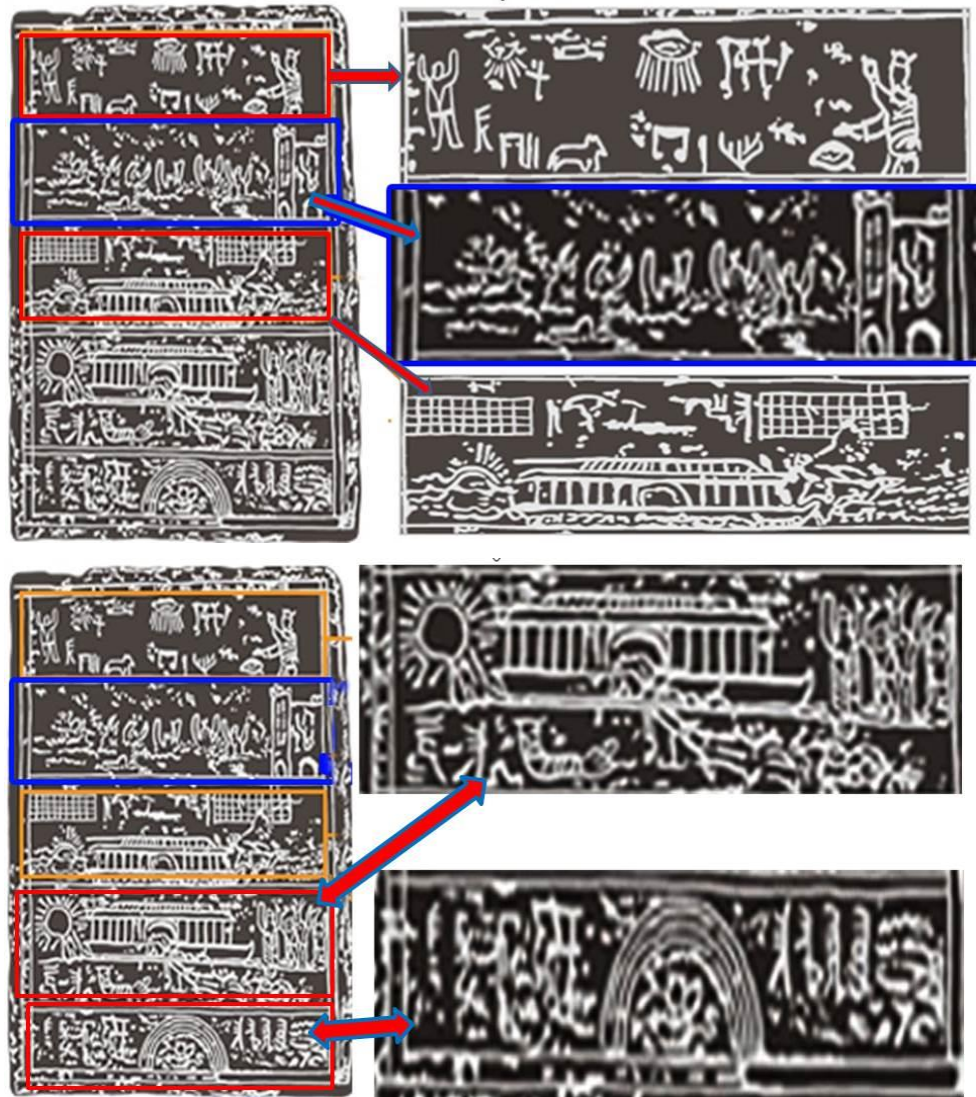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태양이 둥글게 보여진 것이다.

홍수 이전에는 궁창의 물로 인하여 태양이 둥글게 보이지 않은것은 빛의 굴절로 인하여 태양의 아랫부분만 보인 것이다.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면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아니한다. ☞ 계속 다음

☞ 실제로 홍수 이전에 본 태양을 그렇게 그렸던 것이다. 홍수 이후에 본 태양을 둥글게 그린것이다.

이 인디언들은 노아의 후손이었다.



~~~~~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구전으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진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에 놀라고 감사한 일이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서를 기록한 알파벳은 인간이 통용하는 생활 언어로 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담아 주신 것이다.

만일 생활 언어로 발전 되었다면 성경 기록은 처음의 것과 다른 말로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언어 알파벳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sup>19)</sup>

라틴어는 성경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없던 글자가 후에 삽입되었었다.<sup>20)</sup>

그리고 한글 역시 세종 대왕 때에 만들어진 글자가 없어진 것이 있다.<sup>21)</sup>의 주는 다음 페이지로 감 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던 글자 가운데 지금 사용하지 아니하는 글자가 있다.

하여간 모든 언어는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은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수정되고 있다. 때로는 없어지고 있다. 때로는 아예 지구위에서 영구히 사라지는 언어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성서를 기록한 언어는 성서를 기록한 뒤에 그대로 담아 두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본다. 그 계획되고 의도적인 이 일에 우리 모든 인류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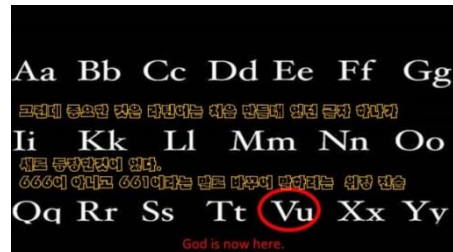
성서를 기록한 언어는 처음부터 더하거나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하신 것이 일점일획이라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주 19) -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

| 만일 히브리어 알파벳이 한두개가 없어<br>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     |     |     |     |     |     |    |    |    |    |
|----------------------------------------------|-----|-----|-----|-----|-----|-----|-----|----|----|----|----|
| 히브리어 알파벳 명칭·음가                               |     |     |     |     |     |     |     |    |    |    |    |
| ק                                            | כ   | ט   | ח   | ז   | ו   | ה   | ו   | ה  | ג  | ב  | א  |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10 | 10 | 10 |
| קפ                                           | כפ  | טפ  | חפ  | זפ  | ופ  | הפ  | וה  | הה | גה | בה | אה |
| 180                                          | 160 | 140 | 120 | 100 | 80  | 60  | 40  | 20 | 20 | 20 | 20 |
| קף                                           | כף  | טף  | חף  | זף  | וף  | הף  | וה  | הה | גה | בה | אה |
| 270                                          | 240 | 210 | 180 | 150 | 120 | 90  | 60  | 30 | 30 | 30 | 30 |
| קף                                           | כף  | טף  | חף  | זף  | וף  | הף  | וה  | הה | גה | בה | אה |
| 360                                          | 320 | 280 | 240 | 200 | 160 | 120 | 80  | 40 | 40 | 40 | 40 |
| קף                                           | כף  | טף  | חף  | זף  | וף  | הף  | וה  | הה | גה | בה | אה |
| 450                                          | 400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50 | 50 | 50 | 50 |
| קף                                           | כף  | טף  | חף  | זף  | וף  | הף  | וה  | הה | גה | בה | אה |

주 20) - 라틴어 U 는 삽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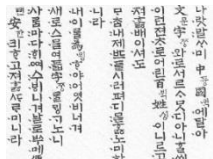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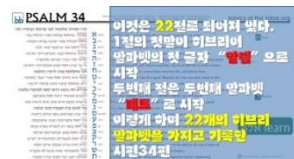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시편 22 편을 22 절로 되어 있다. 그 한 절한 절이 모두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된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시편 119 편은 독특하게 쓰인 것이다.<sup>2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교의 정의와 출발을 하나님으로 부터 본다.



|                                                                                                                            |                                                                                                                 |
|----------------------------------------------------------------------------------------------------------------------------|-----------------------------------------------------------------------------------------------------------------|
| <p>주 22) - 세종 대왕때 있던 글자가<br/>없어진것이있다</p>  | <p>주 23) - 시편 22 편 을 본다.</p>  |
|----------------------------------------------------------------------------------------------------------------------------|-----------------------------------------------------------------------------------------------------------------|

주 24) -히브리어 알파벳이 빠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 보아야 하겠다.

- 시 111 편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각행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알렙”에서 시작하여 시를 쓰고 다음 행은 “베트”로 시작하는 시를 쓴 것이다. 그렇게 하여 22 개의 알파벳이 순차대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영어로 본다면 A 자로 시작되는 시의 한 행 다음은 B 자로 시작되는 시의 한 행 등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10 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문으로 비교해 본다.

- 시편 34 편을 본다.

이것은 22 절로 되어져 있다.

1 절의 첫말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는 말로 기록하였다.

두 번째 절은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22 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 34 편이다.

- 시편 119 편을 본다.

이것을 독특한 모습을 본다.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히브리 알파벳을 기록하고 있다. 단 옆에 히브리어로 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려 붙인 것이다.

1절 일반 성경에서는 앞에 0 이 있고 9 절 앞에 0 이 있다. 즉 8 개의 행이 있고 다음이 또 다른 행으로 시작되는 독특한 시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 행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된 글로 기록하여 8 행을 기록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말이 8 번 기록하였다. ➡ 계속 다음 페이지로

☞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행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베트”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알파벳이 22 자이므로 8 행 식이니 176 절로 되어 있다.

이 시는 각 행마다 말씀과 관계되는 단어가 하나씩 있다. 말씀 윤리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이다.

25 절 ~ 32 절을 봅니다. “딸레트”로 시작하고 있다.

105 절 ~ 112 절을 봅니다. “눈”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시가 지어진 시편 기록은 주전 1,450 년~주전 500 년으로 본다.

기록 연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가 없어진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편의 기록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틴어는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변동이 생겼음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자도 없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알파벳의 순서도 변화가 없고 지금까지 더하여진 것이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의도적으로 히브리어에 숫자값을 붙여 주셨다.

**시편 119편은 126절로**

이것을 독특한 모습을 본다. 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히브리 알파벳을 기록하고 있다. 단 옆에 히브리어로 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려 붙인 것이다. 일반 성경에서는 앞에 0이 있고 9절 앞에 0이 있다. 즉 8개의 행이 있고 다음이 또 다른 행으로 시작되는 독특한 시이다.

**시편 119**  
 13 주의 임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나니  
 14 내가 모든 세물을 삼키되임 같이 주의 말씀의 도를 즐기려하였나니  
 15 내가 주의 법도를 좃스려하며 주의 노애 주의 화를  
 16 주의 율례를 즐기려하며 주의 말씀은 잊지 아니하려이다  
 17 주의 음을 두대하여 듣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은 거기되이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9 나는 방에서 깨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21 보안하여 서주할 만스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을 수에서 무찔었나이다  
 22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니 열망이 면치 못할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 방벽도 만만히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음은 주의 음에 삼키려하였나니  
 24 주의 음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상이니이다  
 25 내 영혼이 권도에 잠입사오니 주의 만군에게 감사치소서

Monday, November 16, 2015 **God is now here.**

1. Have kept thy testimonies  
 23 Princes also did sit and speak against me: but thy servant did meditate in thy statutes.  
 24 The testimonies also are equal to light and my counsel.  
 DALETH  
 25 My soul cleaveth unto the dust: quicken thou me according to thy word.

1. 119:13 ~ 119:24  
 2. 119:25 ~ 119:32  
 3. 119:33 ~ 119:40  
 4. 119:41 ~ 119:48  
 5. 119:49 ~ 119:56  
 6. 119:57 ~ 119:64  
 7. 119:65 ~ 119:72  
 8. 119:73 ~ 119:80  
 9. 119:81 ~ 119:88  
 10. 119:89 ~ 119:96  
 11. 119:97 ~ 119:104  
 12. 119:105 ~ 119:112  
 13. 119:113 ~ 119:120  
 14. 119:121 ~ 119:126

1. 119:13 ~ 119:24  
 2. 119:25 ~ 119:32  
 3. 119:33 ~ 119:40  
 4. 119:41 ~ 119:48  
 5. 119:49 ~ 119:56  
 6. 119:57 ~ 119:64  
 7. 119:65 ~ 119:72  
 8. 119:73 ~ 119:80  
 9. 119:81 ~ 119:88  
 10. 119:89 ~ 119:96  
 11. 119:97 ~ 119:104  
 12. 119:105 ~ 119:112  
 13. 119:113 ~ 119:120  
 14. 119:121 ~ 119:126

1. 119:13 ~ 119:24  
 2. 119:25 ~ 119:32  
 3. 119:33 ~ 119:40  
 4. 119:41 ~ 119:48  
 5. 119:49 ~ 119:56  
 6. 119:57 ~ 119:64  
 7. 119:65 ~ 119:72  
 8. 119:73 ~ 119:80  
 9. 119:81 ~ 119:88  
 10. 119:89 ~ 119:96  
 11. 119:97 ~ 119:104  
 12. 119:105 ~ 119:112  
 13. 119:113 ~ 119:120  
 14. 119:121 ~ 119:126



## 2. 선교 사역에는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본다.

크게 나눈다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나누어 보게 된다. 그리고 좀 더 세분하게 나눈다면 빈민선교, 방송선교, 의료선교, 학교 교육 선교, 영상 선교,<sup>25)</sup> 문화선교, 지역 복음화 선교,<sup>26)</sup> 산업선교 등등을 들 수 있다.

❧ ❧ ❧❧❧❧❧

주 25) - 1983 년 기독교문사 발행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2 권 P1253 - 구경평 1941 년생 1965 년 부산 킬빈 신학 대학 졸업 예수교 장로회 서울 노회에서 목사 안수 사북 교회에서 목회 한국 어린이 전도 집회 춘천 지회 총무를 지냈고 농촌 지역에서 영화 전도 집회를 하다 (1977 년) - 1977 년 12 월 20 일 영상 선교는 시작하다. 아직도 영상 전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멀티미디어 프로 젝트를 이용하다. 그 무거운 16mm 영사기와 필름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 문명의 이기 속에 편리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

<http://blog.koreadaily.com/vistamexico/449636>

영상 선교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부임한 그해 여름이었다. 여름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한 나는 농어촌을 위한 영화선교회에서 이기풍목사님의 일대기를 전도용으로 상영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이 말에 우리 교회에 영화 전도집회를 할 생각에 영화전도 집회를 신청을 하였다.

“구 목사님 신청서를 보니 시골입니다. 우리가 시골에는 저렴하게 5 만원의 출장 상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북이라고 하면 춘천에서 60 리 길을 가야 하는데 춘천에서 60 리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며, 우리 기사들이 사역을 마치고 서울까지 그날 돌아오지를 못하기에 그날 1 일 숙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우시겠지만 지방 출장에 특별 교통비와 1 일 숙박비 등을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내가 한달 받는 사례금이 5 만 원인데 십일조도 떼지를 못하고 몽땅 준다고 해도 모자라는 실정이니 어디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아니었다.

수련회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농어촌을 위한 영화선교 전도사역이라고 하면서 정작 농촌에서 신청한 것이 서울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당일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숙박비를 더 달라고하는 일이...”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며칠을 하고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무심코 지나쳐 버릴 말씀은 아니었다.

☞ 계속 다음 페이지로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 없는 가난뱅이 목사입니다.”

혼자서 자문자답하면서 나의 갈등은 더욱 심하였다. 농어촌을 위한다는 간판은 거창하였고 서울의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이 말이 해당되고 서울에서 먼 농어촌은 좀 더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계산적으로는 정답이 나오지만 자기는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을 올리겠다는 속셈이라는 생각에 분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는 기도는 계속하여 원망이 가득한 기도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고아가 고아의 깊은 사정을 알고 과부는 과부의 사정을 안다. 농어촌의 딱한 심정은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나 전도사가 알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네가 그 일을 해야지 누가 하겠는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답변하는 나의 모습이였다.

어느 주일날 설교에 학개서 2 장 8 절의 말씀을 들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니 우리의 가난을 탓하지 말고 신명기 28 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힘있게 설교하였다. 그리고는 나는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을 향하여 현관문으로 나가 인사를 못 하고 강단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나님 나는 입술로만 설교하는 사람이지 나의 삶과 행동은 하나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음과 몸의 행동이 없는 가증한 목사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목사입니다.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나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실수 있도록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그렇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순종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이 가득한 구경 평이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3 개월 20 일간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던 미련한 기간이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다. 그렇게 결단한 새벽기도가 끝나고 집에왔을때 나는 복음 신문에 영사기 25 만원 필름 20 만원이라는 광고를 보았다. 즉시 50 만원을 농협에서 대출 받기 위하여 장로님께 대출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동안 장로님도 걱정이 되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은 아니하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걱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50 만원을 대출 받겠다는 말에 그 고민은 이 돈 때문 이었다는 것으로 아셨다는 뒷말이었다. ☞ 계속 다음 페이지로

☞ 하여간 깊은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50 만 원을 주고 신문에 있는 그곳으로 갔다.  
8mm 짜리 영사기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안의숙 여사의 신앙수기를 영화화 한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날이 12 월 20 일이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지만 마을에 방송하고 교회 앰프를 통하여 방송하기를

"오늘 저녁 8 시에 사북교회당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영화 감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북교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시기에는 맞지 않지만 첫 영화 상영을 하면서 영상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 뒤에 영화 전도 집회를 농촌 마을 마을을 다니면서 활동하였다.

주 26) - 사북화 운동의 일원으로 사북을 향하여 가다.

- 사북이라는 말은 한글로서 사북을 말하고 있다. 접었다 폄다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저귀 처럼 쓰이는 물건을 말하고 있다. 이곳에 이 운동을 하시는 김용겸 장로님과 함께 사역하기로 하였다. 그분은 학교 교육 사역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생활 살림을 위하여 협동 조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적 지도를 위하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할 자로 함께 손을 잡고 강원도 사북으로 간 것이다.

1983 년 기독교 문사 발행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8 권 P1511 - 사북 교회 - 1966 년 김용겸장로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 사북면 지촌 2 리에 1969 년 12 월 예배당 신축하다. 개척하기로는 갈릴리 기도처(1970), 원평 기도처(1974), 덕촌 기도처(1976)들이 세워지고 각각 자립 교회로 발전하게 됨 1977 년 5 월 구경평 목사 부임  
구경평 저 "광야의 망치소리 정소리" 쿨란 출판사(2010) P119



그리고 선교 사역을 돕는 협력 선교사가 있겠다. 그 협력 선교사들 속에는 기도로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 배후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배후에 나를 지원하는 지원 사격 자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병참 부대와 같이 물질이 필요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들의 강력한 지원이 없이는 현장에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 27)과 같이 자급자족하는 선교사도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주 27) - 1994 년 성서 낱말 사전 성도 출판사 P356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행 18:3)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다면 현지인 교회 목회자를 도우면서 협력하는 사역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직접 목회하는 선교사님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분은 현지인 목회자를 앞세우고 뒤에서 돕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추천하고 싶다. 또한, 선교 현장을 순회하면서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고 도움의 손길을 찾아본다.

그렇게 나눈 정보를 가지고 도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일 <sup>28)</sup>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에 그냥 관광지를 방문하여 구경만 할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이지만 그곳 주민들의 생활상과 그곳에 종교 현황 그곳에 기독교의 분포와 함께 기독교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많은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주 28) -정보를 가지고 도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일

|                                                                                                                |                                             |                                                                    |
|----------------------------------------------------------------------------------------------------------------|---------------------------------------------|--------------------------------------------------------------------|
| 교회이름 Nombre de Iglesia<br>Iglesia de Centro Crwtiono Agua Viva                                                 |                                             | 방문일자 Fecha de Visitar<br>24 de Marzo 2008                          |
| 주소 & 찾아 가는 길 Direccion<br>Callejon R.D. Homara Centere Tercera Y gegundo te. Ey 7 1140217                      |                                             |                                                                    |
|                            |                                             |                                                                    |
| 예배당 앞에서                                                                                                        |                                             | 예배당 실내 모습                                                          |
|                                                                                                                |                                             | 관중이 용마루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 경기일회 Culto (Los dias de la semana)<br>주일 Domingo<br>화 Martes<br>목 Jueves<br>토 Sabado                           |                                             | 시간 Horario<br>Domingo 4:00pm<br>Miercoles 7:00pm<br>Viernes 7:00pm |
| 집회 평균 인원<br>Congregacion(Cuantas Personas)                                                                     | 목사 Pastor<br>Socorro Reques Damo            | 연락처 Telefono<br>52-647-114-0217                                    |
| 설립연도 Año de Fundacion<br>2000                                                                                  | 설립목적 Proposito de Fundacion<br>영혼 구원과 성서 연구 |                                                                    |
| 급히 필요한것 Que Necesita<br>1. <del>관중</del> 용마루를 했으면 한다. 길이는 약 50FT<br>2. 교목관 건립을 원합니다.<br>3.                     |                                             |                                                                    |
| VBS를 위하여 Para Vacacion Estudio Biblico                                                                         |                                             |                                                                    |
| VBS의 적당한 장소 Mejor Lugar Para VBS                                                                               |                                             |                                                                    |
| 관광서 Delegacion(O municipio)                                                                                    | 학교 Escuela (SI & No?)                       |                                                                    |
| 방문자 의견 Opinion de Visitantes                                                                                   |                                             |                                                                    |
| 8년된 교회가 건축은 끝하였지만 25명의 성도로서 남은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실정을 알게됩니다.<br>비가오면 용마루가 되어 있지 않아 그곳에 비가 들어와 은 바닥을 적신다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                                             |                                                                    |

2013년 6월에 일본으로 1개월간 집회 관계자 방문을 마치고 7월에 नेपाल을 향하여 선교지 순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3년 동안 꿈을 꾸어온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나는 선교지를 방문할 마음으로 갔다.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왔다. 나를 인솔할 현지인 목사 이름이 Sanjeep Thapa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나는 따라 다니는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다.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시가지를 보는 순간 나의 첫눈에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쁜 것이 내 눈에 가득하게 들어오고 있다. 교통 순경이 있지만 끼어들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 웬 2륜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지 ... 사람 숫자보다 이륜차가 더 많다고 말할 정도이다. 역시 끼어들고 있는 아찔한 곡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가운데 택시라고 하는데 웬 사람이 많이 타고 가는지 말로 못다 하겠다.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이라기 보다 콩나물시루에 담겨있는 콩나물같이 주렁주렁... 좀 심하게 표현했나요? 아니 저것을 또 무엇인가? 세 발 자동차가 있다.

한국에서 3륜 자동차로서 연탄 배달하던 차이었다. 그런데 이 3륜 자동차는 마을버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라고 한다. 자동차 탑에 실려 가는 짐들이 있다. 그리고 어느 버스는 염소를 길고 가는 모습을 본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낡은 자동차들이 총출동한 느낌을 가질 정도이기도 하다. 도로는 포장도 잘되지 않아 흙 먼지가 많고, 사람도 많고, 이륜차도 많고, 끼어드는 차도 많다. 이러한 것 때문에 도로 교통은 혼잡하다 못하여 마비될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런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자기들의 갈 곳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 마치 홍수에 흙탕물이 흐르고 급이치는 그 물 줄기는 장애물이 있던지, 없던지 흘러간는 것 같이 잘 가고 있었다.

Sanjeep Thapa 목사님과 함께 일차 숙소에 들렀다.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식당에 갔다. 이게 웬 일인가?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것이다. 식당에서는 촛불을 켜 놓기 시작한다.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정기적으로 맞이하는 생활의 한 부분처럼 일상화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촛불을 켜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이렇게 전기가 나간 뒤에 3시간쯤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처럼 전기가 나간다고 한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기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잠자리에 든 자들이 있다.

전기 사정이 나쁜 것은 전기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고로 가정에 전기 공급을 공장으로 돌려놓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요일 아침에 예배하러 예배당에 갔다. 예배당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발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예배당에서는 힘찬 찬양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다. 오늘은 한 주간에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날이라고 한다. 곧 안식일이다. 그리고 보니 이날은 관공서도 휴일이라고 한다. 일요일~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마치 유대 안식일 생각이 났다. 그렇다고 유대교나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 이들은 힌두교가 국교이다. 기독교는 극소수의 인구이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부흥되어 가는 추세라고 한다.

네팔에서 최초로 시행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네팔의 그리스도인 수는 2007 년 힌두 국가에서 종교 세속 국가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는 세 배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전체 네팔 인구 2,600 만 중 기독교 인구 비율을 1.4%로 못 박은 인구조사 방식이 실제 그리스도인 숫자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 월 네팔 정부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종금지법 때문에 힌두교인으로 신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어딜 가도 전기 사정은 말 없이 나가면 어김없이 2~3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하루에도 2~3 번은 나가는 전기이다.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나간다. 예고도 없다. 전기 사정이 나쁘다 보니 도로는 가게에서 비추어지는 빛과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거리를 밝히는 정도이다.

Sanjeep Thapa 목사님과 함께 이상한 폭포를 구경하게 되었다. 강물이 흘러오다가 동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또는 어떻게 생긴 절벽인지는 알 수 없다. 그냥 땅속으로 떨어지는 강물이다. 이곳에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1961년 7월 31일 스위스에서 온 젊은 남녀가 이름은 Davis라고 한다. 이곳에 관광 와서 여자가 강 상류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만 빠지게 되었다.<sup>29)</sup> 이것을 본 그녀의 남자 친구는 애인을 구출하려고 그 강에 뛰어 들었다. 구출을 위하여 뛰어들었지만 그 폭포 속으로 끌려 내려 갔다는 사랑의 극치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분들이 이곳에 떨어졌다면 어딘가 그분들의 시체가 나왔는가? 라고 목사님께 물어보았다. 나의 이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내일 그곳에 가자고 말을 한다. 나는 이 밤을 그 슬픈 사랑 이야기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급한 마음에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그곳으로 갔다. 이곳에는 수력 발전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저 구멍으로 어제 본 그 폭포가 연결되어 그 물이 이곳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 두 분의 시체는 이곳으로 나왔는데 완전히 시체는 분해되고 깨끗하게 씻기어 빠만...

이 말에 더 마음이 아픈 나는 그만이야 “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곳이 수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고 발전소 터빈은 돌아갈 생각도 아니 하는 중에 있다. 그나마 전기 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 발전소에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되는데...하면서 탄식의 불평을 한바탕 늘어놓았다. 돌아오는 길에 슬리퍼 가게에 가서 슬리퍼 120 쌍을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일의 여행을 위하여 일직 잠자리에 들었다. 지난 날 밤을 울면서 지새웠던 일이 있어서인지 자리에 눕자 그대로 잠에 빠졌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 나는 함께 자동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갔다. 우리 일행을 기다리는 이곳 현지 교회 지도자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가지고 온 슬리퍼와 성경책을 받아 어깨에 매고 앞장서서 횡하니 가버렸다. 가도 가도 마을이 보이지 않기에 물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가하고 물었더니 앞으로 한 시간 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도 가도 시간은 가는데 길은 늘어나는지 목적지에 도착은 멀기만 한 것이다.



주 29) – Nepal에서 가장 사랑의 극치와 슬픔이 교차한 곳을 보다 동영상 주소는

<http://cafe.daum.net/vistamexico/MnB4/54> ☞ 계속 다음 페이지로

☞ 사진으로 기록한다.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흐르는 강물</p>  |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 폭포</p>   | <p style="text-align: center;">사건 기록</p>  |
| <p style="text-align: center;">발전소</p>     | <p style="text-align: center;">폭포 끝자락</p>  | <p style="text-align: center;">발전 변전</p>  |

~~~~~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 나는 3 시간이나 소요된 상황이었다. 비는 오다가 개기는 하였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야단이 아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지만 그대로 잠자리에 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교회 지도자 집 마당에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한다. 주민들도 함께 100 여 명이 모였다. 예배 후에 가지고 온 슬리퍼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배 고프은 잠자고 싶은 마음보다 강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물을 끓이고 끓는 물을 컵에 붓고 3분을 기다리기가 바쁘게 먹게 되는 너구리의 맛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일품이었다. 역시 전기가 없는 곳이라 손전등으로 한 손은 조명하고 한 손은 먹는다고 입으로 가지고 가는 진풍경이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제 수력 발전소에서 불평한 말이 생각이 났다. 불평하면서 던진 말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불평은 한마디 없이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나를 되찾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아버지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다. 만일 내가 다음에 이곳에 온다면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함을 본 나는 전기가 나간 그 순간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것은 Solar light 이다.³⁰⁾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들에게 슬리퍼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아니 되는 말로 들려지겠다. 하지만 이 슬리퍼가 생활에 요긴한 것이다.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다 젖어 버린다. 비 오는 순간에 속수무책이다. 신발이 젖었으니 난감한 일이 된다. 그런데 슬리퍼는 금방 말라 버리기에 제격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1977 년부터 영상 선교를 하던 자로서 이곳에 영화 상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첫 방문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침 나를 안내하시는 Sajeep Thapa 목사님이 이곳에서 영상 선교를 겸하여 한다는 것이다. 나와 동질의 사역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역 간증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³¹⁾ 대화하는 가운데 네팔어로 된 영화를 준비하면 다음에 가지고 올 것을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하여 네팔 방문 일정 28 일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네팔어로 된 기독교 영화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수소문을 하지만 첫 단추를 끼지 못하고 4 개월이란 세월만 흐르게 되었다. 점점 다급해지는 가운데 망막한 생각에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가득해 진다. Solar Light 는 보아온 것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고 슬리퍼 구입은 돈을 마련하면 현지에 가서 사니 문제가 아니 되지만 영화만은 난감해 갔다. 답답한 가운데 중앙일보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코너에 가서 질문을 하였다. 그곳에서 답장이 왔다.



주 30) – 위키 백과 사전 - 태양광 발전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太陽光發電)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법이다. 태양광 발전은 여러개의 태양 전지들이 붙어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다.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 전지와 태양광 어레이의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 31) –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 2014 년 9 월 23 일 Nepal 선교지 순방을 하는 중에 이런 Sanjeep Thapa 현지인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 English / 주소는 <https://youtu.be/X67N1uMxyCk>

그 답은 nepali christian movie 를 검색하면 ³²⁾ 네팔어로 된 기독교 영화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검색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었다. 그렇게 하여 네팔어로 된 기독교 영화 17 편을 준비하였다.

2014 년 8 월에 영화 17 편의 DVD 와 함께 이승철 목사님께서 준비해준 솔라 라이트 10 셋트와 이재삼 목사님과 송채원 집사님께서 슬리퍼 살 수있는 돈을 준비해 주심에 기쁜 마음으로 네팔을 향하여 날아가기로 하였다. 이때 수원에 계시는 의의 병기님께서 네팔 왕복 항공권을 마련해 주심에 힘차게 달렸다.

28 일간의 네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중국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역시 의의 병기님의 도움이 있어 10 일간의 방문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이야기는 지면을 통하여 말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주 32) - 아래 주소가 검색한 가운데 주소이다.

[https://www.google.com/search?q=solar+light&hl=en&biw=1448&bih=925&site=imghp&source=lnms&sa=X&ved=0ahUKEwjykpZgdPJAhULej4KHXF6Bl4Q\\_AUIBigA&dpr=1#hl=en&q=nepali+christian+movie](https://www.google.com/search?q=solar+light&hl=en&biw=1448&bih=925&site=imghp&source=lnms&sa=X&ved=0ahUKEwjykpZgdPJAhULej4KHXF6Bl4Q_AUIBigA&dpr=1#hl=en&q=nepali+christian+movie)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3. 선교사가 무엇인가?

선교사란 목사이면서 선교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sup>33)</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교사가 현직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목사의 직위는 아니 것 같다. 이 직분은 성직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목양자로서 목회 행정을 맡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다른 말을 한다면 초대 교회 사도들의 계승자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가정 교회를 이루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하면서 가정 교회로 조직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로 성장하는 일이 되어 목양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선교사가 목회자로 자리바꿈하기 보다는 목회는 그곳 현지인이 직접 하게 하고 뒤에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는 2013 년에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던 중에 본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네팔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사역하시는 정도용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복음 사역에 성도들이 모이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정상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나의 임무는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라는 마음으로 현지인을 발굴하여 목양하게 하고 뒤에서 그 목양하는 목사님을 돕는 자로서 관계를 계속 유지 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사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사역한 것이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초대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자는 전도하여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주 33) - 기독교 대 백과사전 기독교문사 발행 (1983 년) 제 8 권 P1096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9~20)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선교사가 행하여야 할 것과 사명이 보인다.

- 선교 대상 –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야 한다.
- 선교할 일은 – 가르치라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말할 것이 없다 성경이다.
- 침례를 주라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것이다.
-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향하여 가야한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는 목회자가 할 일이다. 양떼를 지치는 목양자가 할 일이다. 선교사는 목양자가 아니다. 그리고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져야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영역은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어떤 신학자는 선교적 사명을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하나님 – 세상 – 교회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sup>34)</sup>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 목양하는 일이 있고 목양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외치는 마음의 자세는 여러 가지 이겠다.

선교사를 향하여 따라오는 일이 있다. 심지어 추방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어떠한 행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을 것이다.



주 34) -기독교 대 백과사전 기독교문사 발행 (1983 년) 제 8 권 P1101

그런데 복음을 전한 뒤에 돌아오는 것은 냉담하고 냉소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핍박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겔 2: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예레미야 1:7)

선교적 사명은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사역이 목양자의 사역은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 자리에서는 목양에 대한 말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대표적인 선교 활동에 이른 바울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sup>38)</sup> 바울의 선교 중심 사상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자 이었던자는 말합니다.“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고전 2:2) 선교사 이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그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고백한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8)(롬 8:17 ; 갈 2:20 ; 엡 2:5 ; 빌 1:23 ; 골 2:12 ; 골 2:20 ; 골 3:1 ; 골 3:3 ; 히 3:14)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였던 것이다.

듣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전하는 자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다.



주 38) – 성경 낱말 사전 1994 년 성도 출판사 P 354~ P357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나면 듣는 자가 듣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핍박이 이르게 되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선교사들의 문제점

선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나 혼자 알고, 보아도 못 본 것 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 처럼 살아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게라는 말 같이 입을 봉하고 살아 간다면 서로가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 간다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지적을 하였더니 이게 피네미 같은 존재가 무슨 소리 하는가? 네가 선교 현장에 온 지 얼마나 되고 무엇을 알고 얼마나 일을 해 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라고 쓴소리만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거리감을 받게 되고 왕따 수준으로 몰리는 일이 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 감정으로 이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펜을 잡았다. “만일 어떤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시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 히브리 헬라이어 직역성경 말씀의 집 (2015)에서는 “...그 일이 그에게 숨겨 졌어도 그는 부정한 잘못이 있다.”로 기록하고 있다. (레 5:2)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셨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물어 볼 필요가 없다. 인간이 부정하여진 그것으로 유죄 곧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진 것에 대하여 드러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죄 판정을 받는다고 하심을 본다. 사람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저도 잘못이다.

유죄다 라고 하는데 선교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못 본것 처럼 하고 들어도 아니들은것 처럼하고 같이 동반자가 되고 입을 봉하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공범자로 판정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히브리 헬라이어직역 성경-마르코(마가복음)8:18 에서 이렇게 기록하고있다.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에서 책망을 받았다.(막 8:17~21)

## 1. 행사 위주로 활동

단기 선교팀이 선교 현지 오면 현지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해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답사한다. 조사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준비한다.

그로 인하여 이발, 미용을 통하여 예쁜 머리로 단장해 준다. 의료 선교를 통하여 진찰하고 의사가 처방한 것을 현장에서 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일들이 단회성이라는 사실이라도 현지인들에게는 그 순간 즐겁고 좋은 일이다. 한편 주방에서는 바베큐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1 일 부흥회를 한다. 공터에서 고성능 앰프를 가동하여 힘찬 찬양을 한다. 그리고 소리 높여 설교한다. 그렇게 한 뒤에 준비된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줄을 서고 배식한다. 영육간에 만족하게 공급하고 채워지는 순간 누가 보아도 즐겁고 은혜로운 장면이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면 곳 그룹으로 성경 공부 또는 게임을 통하여 진행되는 순서에 선생님과 학생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 나누어 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가? 정말 보기 좋고 칭찬할 만 한 일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자를 향하여 질타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일들이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분명히 현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분의 목회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된다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고작 단상에서 현지 목사님을 인사 소개하는 수준이다. 그 목회자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서비스하는 정도이다. 하기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서 만들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총 진행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진행에 설교의 한 부분을 그곳 담임자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목회 현장에서 주민들과 밤낮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자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데 왜 공터를 이용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배당에 이 많은 사람이 모두 들어갈 수 없으니 공터에서 한다고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큰 무리의 군중에서 집회했노라는 경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참여하는 일도 좋다. 그렇다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은 어떤가? 만일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집회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마 4:25)

여러 곳에서 온 무리가 한곳 예배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러한 곳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특수 사정은 별개로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좁고 협소하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서 진행한다면 이 일로 인하여 예배당에 주민이 발을 들여놓게 되고 밟아 본다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라는 새로운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단기 선교팀이 와서 행사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사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돕는 것인가? 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을 직접 나누어 주고 가는 것 그 순간은 아름답고 보기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그 교회에 주고 갈 수 없는가? 나 본인을 구제품들을 가지고 가면 그 교회 담임자에게 몽땅 준다.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사용하던 나누어 주던 그것은 내 손에서 떠난 이후에는 내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그분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

“이제 후로는 단기 선교팀이 이곳에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 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하지만 나의 머리로서는 그 답을 얻어내지를 못하였다.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그분을 찾아갔다.

“왜 목사님은 단기 선교팀을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분의 길고 긴 사연의 말을 압축해 말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해 본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단기 선교팀이 왔다가 간 다음 나는 목회에 도움이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한다.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저분(단기선교 팀)들은 선물을 주고 가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이 살면서 이곳에 교회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작 교회 나오라는 쪽지(전도지) 한 장인가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에 답은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저분(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선물을 주었으니 교회가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그 말은 인정하지 않고 무능한 목사 취급을 하니 도움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을 주민들의 사고도 문제가 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연합하여 그 잘못된 사고를 고치는 데 힘을 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조금만 지혜롭게 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 교회 목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분(단기 선교팀)들이 떠들다가 가는데 목사는 그날 어디 갔소?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을 들었지만 생략하겠다.

분명히 이 말에는 현지 교회 담임자를 좀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함께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지 목회자의 자질과 신학적 실력에도 문제가 있다.이 말은 뒤에 지도자 세움에 문제점을 말할 할때 하기로 하겠다. 많은 문제점을 보면서 그냥 가슴에 담아 두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소리는 내야 하겠고 궁여지책으로 쓴 글들이 있다. 통틀어서 멕시코 선교사로서 보고 느끼고 들은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잔소리를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다.<sup>36)</sup>

❧ ❧ ❧❧❧❧❧❧

주 36) - 선교칼럼 "값진 잔소리"쿤란 출판사(2010)

❧ ❧ ❧❧❧❧❧❧

## 2. 물질 공세로 인한 부작용

선교 현장에 지원 사격하는 일에는 기도가 가장 급선무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아니면 어느 것도 진행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일일 것이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납치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납치하여간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라고 경고하셨다. “지금 그 사람은 선지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밝혀 주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살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창 20:7)

여기에 사건을 보면 선교사가 파송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놀랍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자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데 상막한 환경들이 눈앞에 준비한 것 가운데 눈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때로는 그 기도 소리는 탄식의 울부짖는 신음 소리와 같고 눈물의 두 줄기는 두 뺨을 적시면서 한숨도 나오지 않는 절규일 것이다. 선교사가 파송된 그곳에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분서주(東奔西走) 하면서 쉴 사이 없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그 현장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죽고 사는 역사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본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무엇하기 위한 것인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삼상 7:5)

기도한 후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 엘리사를 사로잡아가려고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순간 엘리사는 기도 후에 청년들이 본 놀라운 광경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는 둘러 보호하는 것이다. (왕하 6:17)

이렇게 기도의 결과는 닫힌 눈이 열리는 일이 있었다. 선교사가 파송되어간 그곳에 닫힌 영혼의 눈이 열리는 일은 배후에든 누구이든지 기도하는 그 힘이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 하셨다.( 막 1:35)

오래되고 품질된 책이다. 박아론 박사의 저서 "새벽기도의 신학"이다.

이 책을 신학 공부할 때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난다. 지금도 기도하고 말하는 순간 "새벽기도 이야기"<sup>37)</sup>를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새벽기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새벽기도로 충실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최권능(본명은 최봉석)목사와 주기철 목사 조만식 장로 등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그런데 새벽 기도의 기원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다. (막 1:35) 새벽만 기도하는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그 자체가 기도이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서 선지자가 말씀 하신 것 같이 "내 집은 모든 민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막 11:17 ; 사 56:7) 고 지적하셨다. 그 기도하는 집은 모든 민족의 것이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헌물들 그리고 이곳에 드려지는 희생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현장 사역자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급선무이다. 그리고 기도하여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야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막 9:29)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것이 가능하심(막 10:27)으로 그분께 기도로 지원사격 해야 한다.



주 37) - 박아론 저 "새벽기도 이야기"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5) - 박아론 박사는 그의 아버지 박형룡 박사의 위를 이어온 신학자이다. 신사 참배 반대로 인하여 평양 신학교는 폐교 되었던 슬픔 속에 박아론의 아버지는 "성경 표준 주석"을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아론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뒤 따르는 지원 사격은 물질로 봉사하는 자들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맨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현장에는 움직이면 그대로 돈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필수적이기도 한 것이다.

오래전에 모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일상적으로 하던 말이 생각난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이것 두 가지는 잘하면 좋겠다. 첫째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문을 잘 쓰라.” 이 말은 선교 보고 편지의 첫 한 두줄을 읽어내려 가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감동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가 당신에게 붙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행사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모인 모습을 잘 담아 함께 보내도록하여라. 그리하면 선교 사역에서 참 잘하는 일군으로 보이고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던 옛 그날이 생각난다.

그런데 그 말의 현실이 선교 현장에서 보는 꼴볼견의 사건을 보았다.

현장에 온 선교사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이다. 이곳과는 상관이 없는 선교사이었다. 다만 친구가 하는 사역에 돕는 차원에서 왔다는 것이다. 열심히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보았다. 이것은 그 친구가 사역하는 이곳을 돕기 위하여 글과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 일로 얻어진 것은 자기가 사역하는 것 같이 꾸며지고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얻어진 것은 자기의 몫으로 남아 버렸다.

나는 이러한 일을 보고 후회를 한다. 작문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라라고 말을 하였지 진실하고 솔직한 인간이 되어 선교지를 향하여 가라고 말을 하지 아니한 나의 큰 오류가 만든 작품이었다.라고 나는 이 시간 이 지면을 통하여 고백한다.

나는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하는데 믿음으로 헌신하고 간 두 사람을 알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 인물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도적인 사명자라고 본다.

한 사람은 나의 처남이다. 이름은 문흥환 장로님이다. 선교지를 향하여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집안 살림살이는 몽땅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의 집에서 3 개월 동안 기숙하면서 마무리 준비를 하는 중에 있었다. 그때 나는 물었다.

“처남 탄자니아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현장 답사를 해 보았는가?”

“현장 답사를 하면 아니 갈 것이 뻔한데 왜 현장 답사가 필요한가요 갈 것이면 그냥 가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하는 처남의 말이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리고 네팔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한 이세정 목사님 부부가 있다. 역시 현장 답사를 하면 못 갈 것이기에 갈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행동을 하신 분들이다.

탄자니아를 향하여 간 그분은 지금까지 5 년째 사역을 잘하고 있고 네팔로 가신 분은 3 년째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답고 헌신적인 분들이 있기에 선교 사역에 보람이 있고 미래가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사라는 말의 뜻과 기원을 들어 말을 하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가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뜻을 따르고 있는가?<sup>38)</sup>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계신 것을 선교의 기원으로 본 나는 요한복음 20 장 21 절에 보내다의 뜻인 펴포라는 헬라어는 파송하다는 말 같이 보냄을 받은 사명자 이었던가?

지금 그 마음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향유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며 부어 놓는 여인을 향하여 그 값진 것은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허비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불평하던자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다.



주 38) – 갑진 잔소리 콤란 출판사 (2010) 구경평 저 P19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녀를 가만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는 나에게 선한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고 너희가 원하는 데로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막 14:1~7) 고 하신 말씀 속에 가난한 이웃이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라고 골몰해 보았던가?

예수님께서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마 19:24 ; 막 10:24 ; 눅 18:25) 그렇다면 부자가 몽땅 하늘 나라를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로 들려진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최후를 보아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 구덩이있다.(눅 16:19~31) 는 기록을 보면 부자는 다 지옥행으로 가고 가난뱅이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보인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면 생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되돌아와서 전하는 말과 권면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지적하심을 본다.

그런데 선교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보자 선교사가 어느 부유한 재력가의 도움으로 예배당도 건축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받도록 해 준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하면서 나에게 질타하는 소리도 들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 보겠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선교지에 모든 선교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잘했다. 잘못된 것이다. 등등의 판단은 보는 자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말은 미리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자 이다.

멕시코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LA 에 어느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멕시코 모 지역에 왔다. 첫해에 집회 모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두 번째 해에 약 300 명이 넘는 인원을 소화하면서 이곳에 온 보람을 느끼었다.

이곳에 좋은 결실을 생각하면서 큰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 교회 지도자와 의론하기를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 줄 것이니 땅을 알아보라고 한다. 결국, 땅 구입과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을 혼자서 관리하고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이니 부목이나 교육 전도사를 두자고 하는데 매월 그에게 지불해야하는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손사래를...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은 들은 말들의 말에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다음 주일날 다른 장로님께 지시하기를 몰래 주일날 그 교회에 방문해 보기로 하였다.

이곳에 와서 본 것은 교인 10 여명이 모여있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궁금증이 가득하였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질문하는데 그 답이 누구는 어디로 간다고 못 오고 누구는 어찌고... 하는 궁색한 변명의 답변이 시작되었다. 다음 주일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올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돌아와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다. 목사님께서 다시 다음 주일날 가보라는 지시이었다. 그렇게 다시 왔지만 역시 지난 주일에 왔던 그 사람들의 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예배 후에 온다던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라고 구차한 변명이 또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믿고 돌아올 리가 없었다. 마을을 향하여 발걸음 옮겼다. 마을에서 수소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 지도자는 거짓말로 일괄해 온것이 그대로 탄로난 것이다. 그 교회 지도자는 그 많은 수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팀이 찾아왔을 때에 마을 주민들의 동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투자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진 건축헌금, 선교 헌금들이 이렇게 거짓된 자의 손에 놀아난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건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스란히 그 지도자의 개인 재산이 된 것이다.

남은 것이라고는 속임을 받았다는 감정에 허탈감 뿐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다음 아래 이 이야기에 선교사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CH 선교사님께서 연결한 단기 선교팀이 오기로 한 날에 교도소 순회 전도 집회 때문에 J 선교사님께 이 단체를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J 선교사님은 그분들을 잘 모시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부터 계속하여 그분의 출입과 연락 등등의 모든 일체는 CH 선교사님을 제외하고 자기의 사람처럼 만들어진 일이 있었다. 그 결과 CH 선교사님과 J 선교사님 사이는 풀리지 아니하는 앙금이 생겼다.

이것뿐이 아니다. 이와 엇비슷한 사건들은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선교사님은 이곳저곳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받았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체와 교회 등지에서 건축 헌금을 받았다. 건축된 가운데 머릿돌에는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작은 머릿돌에 이름을 기록하여 만들어 세기였다. 이렇게 세워진 건물을 팔겠다고 흥정하는 일이 있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 건물이 사유 재산이 된 것 같이 팔겠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 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마 26:14~16) 3 년동안 스승을 따르면서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하던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기는 일이 생각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지고 세워진 것을 역시 예수 이름으로 사고 팔아 넘기려는 흥정을 하는구나 하면서 돈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던 나는 저 멀리 네팔 선교지를 향하여 갔다.

이곳에서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옥에 티이리라 여기면서 지나갈 사건이 아니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였더니 한국에서 성전 건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받았다. 도움의 손길이 몇곳이 되었다. 이렇게 세워졌으면 종합하여 예배당 건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어디 잘못되고 탈이 나나? 방문하여 찾아오는 교회 식구마다 이곳 교회 이름 간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한 곳에는 한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해 주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모 선교 단체에 연결되어 성전 건축의 명목으로 건축비를 받았다. 건물은 하나이다. 그 하나인 건물을 가지고 건축을 위한 것으로 돈을 챙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속하여 이곳저곳에 답장하고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정성스럽게 보내준 건축 헌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를 한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쓴다. 계속하여 지원을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지역 내에 교역자 모임에는 00 목사는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인 수는 10 명 정도이라고 한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이야기만 실어도 부족한 지면에 이런 아름답지 못한 소리만 가득한 이 지면에 너 자신은 얼마나 완벽하고 깨끗하냐고 지적하겠구나 하면서 웃기를 한번 만져 본다. 부끄러움이 많은 자의 뉘드리며 잔소리이다.

### 3. 현지 지도자 세움에 문제점

나는 처음 멕시코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갔던 첫날부터 눈물을 가지고 쓴잔을 마시면서 <sup>39)</sup> 얻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건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좋은 쪽의 소식보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내 눈에 가득하게 들어온다.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옛날 어는 젊은 시절에 범죄 수사학을 공부한 결실인지 나는 모르지만 모든 사건을 좋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따지고 캐보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처음 멕시코 선교지를 향하여 온 나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나 나름대로 만든 양케이트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방문하는 교회에 이것을 보여 주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께 드렸다.<sup>40)</sup> 그런데 그 분은 교회에 한 청년을 불러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 양케이트에 질문들을 청년은 목사님께 묻고 그 답을 써 주는 것을 나는 사진도 찍고 한글로 번역하여 한장의 페이퍼를 만들고 철하였다. 이것을 도울수 있는 자를 찾아 최대한 해결 하도록 노력하였다.



주 39) -본 연구 제 1 장 서론 첫 페이지 하단 참조

주 40) - 주 38)을 참고 본 연구 P30

모든 교역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의 몇몇 분이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의 칭호를 받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문앞에도 서지 못한 사람인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떻게 그분이 이 교회 목사가 되었을까? 는 질문을 가지고 알아본 나는 역시 선교사가 만든 위대한 작품이로다. 하면서 비아냥 그러도 보았다.

사건은 이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오면서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을 뽑아 소집책으로 세웠던 것이 첫 단추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집책으로 있으면서 그의 소집 능력이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 실력은 향상되었다. 구수한 입담도 좋았다. 그렇게 만난 사이가 교회를 구성하게 되고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알고 많은 뜻 있는 선교사님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도자 재교육이라는 카드를 내 걸었다. 지도자를 세우기는 쉬웠지만 그렇다고 당신 그만두시오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방법은 교육 시키자이었다. 역시 두 손 높이 들고 찬성한다. 이 일에 앞장서신 선교사님은 박영환 선교사이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멕시코의 선교에는 미래가 보인다. 하지만 많은 현지 교회 지도자는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누군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가정에 기본 생활 그 자체가 어려워 난감해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은 고사하고 성경 공부하나 푹 소리나게 배울 수 있는 여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국경 도시를 끼고 있는 멕시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밀집하여 사역하는 중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숨겨진 가운데 훑아 터지는 순간에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현지 지도자를 세우면 그가 성경 공부 할 수 있는 여권을 조성해 주는 일이 급선무이기도 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박영환 선교사의 그 혼자 사명과 추진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역 지역 여러 곳에서 단 몇사람이라도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여권과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 본인은 섬기는 교회에 교역자가 바뀌었다. 먼저 사역하시던 목사는 토요일에 어린이 성경공부시간을 가지면서 사역하는 부부의 헌신이 아름답고 좋았고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한번은 나에게 정식으로 영화 상영을 지정하는 것과 지정된 주일 날이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었다.

목사님 이 영화는 지난달에 보지 않았는가?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 한마디로 "NO"이었다. 오직 그날에 그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것도 예배 시간이었다. 지정한 주일날 지정한 영화를 상영하였다.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 나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목사가 멕시칼리로 옮겨가고 새 사람이 부임하게 되었다. 금방 이사해 올 것으로 알았는데 3 개월이 되어도 매 주일날 하루가 고작이었다. 결국, 그는 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부임한 것이다. 그분은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던 사이이며 허물없이 지내던 그 교회 교인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는 물었다 "너 성경 공부해야 하겠다"라고 직접 묻는 말에 이유가 없이 공부해야 하겠다고 한다. 그 한사람이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기로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노회에서 교역자를 세우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여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 지도자로 사역하게 세웠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 미자격자라도 지도자로 세웠으면 자격을 갖추도록 돕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4.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막 10:45)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자기 생명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섬김이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선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본다. 예수님도 섬겼는데 말이다.

선교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있다. 선교사에게 지원이 확실한 가운데 좀 여유 있는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퍼서 나누어 주어도 모자라 눈물로 호소하는 분이 있다. 이러한 사건이 있다.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비었습니다.”<sup>41)</sup>

남에게 내 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형적인 말이 아니었다.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의 가정에서 어려운 그 말에는 눈물이 나온다.



주 41) – 구경평 지음 “잡진 잔소리” 쿨란 출판사 (2010) P183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비었습니다.

이러한 딱한 말이 들린다. 듣는 순간 무너지는 가슴에 억제 할수 없는 순간이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의 무능을 보여 주는 순간이며 남에게 우리 집의 가난함을 말하는 순간이었다.

창피함도 모르는가?

수치심도 없는가?

그저 입버릇 처럼 하는 말이 되었는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선교사의 가정에서 현지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딱한 사정에 내 집에 있는 것을 적지만 나누어 주다 보니 내 집 냉장고는 비어있을 때 시장을 보아 채워 놓지만 찾아온 현지인들의 딱한 사정에 지나치지 못하는 여린 마음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다.

저들을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오는 딱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때나 원하는대로 도울수 있거니와...(막 14:7)고 하신 말을 생각하면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저들보다 나으니 말이다. ☞ 계속 다음 페이지로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그런데 저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쌀이 없어 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다.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 딱한 사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제적풍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다가 정작 내 가정에 쌀이 없고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는 네 곁에 있다”는 그 말씀 말이다.

한국에서 있었던 어느 시골 교회 목회자의 가정에 저녁 끼니를 위한 쌀이 없었다. 집집마다 저녁 준비를 하느라고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교회 목사님은 조용히 강단에 앉드려 기도하고 있다. 사모님은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굴뚝에 연기를 피워 올려야지.... 이었다.

숯에 물을 데우기 위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었다. 시골집이라 연기가 가득하게 방에도 피어올랐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은 그래도 저녁을 어디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배도 고프지만 처자식이 있는데 하시면서 나오는데 부엌에서 불을 피우는 아내를 보고 여보 어떻게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아내는 짤막하게 “네”하고 대답을 한다.

저녁 밥상이 들어 오기를 기다리던 목사님은 딸아이와 같이 부엌으로 왔다. 아궁이에 불은 꺼지고 부엌에 사람은 없다. 저 멀찍이 한 곳에 흐느끼는 울음 인기척이 있었다. 숯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목사님도 딸도 그냥 울고 말았다. 숯에는 물만 끓고 있었다. 말없이 그 뜨거운 물 3사발을 상에 올리고 딸 아이에게 이것 가지고 방으로 가거라. 엄마 모시고 올테니...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여보” 저녁상 차려 놓았으니 방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아내를 방으로 모시었다. 저녁상이라고는 물 새 사발이 전부이었다. 그날 저녁에 차려진 저녁상에 세 식구가 상에 앉아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마시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성도들의 흥금을 울리고 지금도 울고 있다.

가난의 흔적은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것이 선교 현지에서도 보고 겪는 고통의 신음이기도 한 것이다.

섬김의 자세에는 가난하고 없어도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거절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는 것이다.<sup>42)</sup>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부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자도 없다.

❧ ❧ ❧❧❧❧❧  
주 42) -

**사랑의 본**

Composer  
1986년 8월 6일 작곡&시 : 구경평

♩ = 75

Soprano

너 희도 서로 사 랑하 라 주 께서 분부 하 셨 네

5

S

우 리가 서로 사 랑하 자. 사 랑은 주께 속 한 것, 사 랑을 줄 수

10

S

없 을 만큼 가 난한 자도 없 구요 사 랑을 거절 할    만큼

15

S

부 요 한 자 도 없 어 요.

©구경평 Paul Ku

❧ ❧ ❧❧❧❧❧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내가 여유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면서 일하는 일군이 되기보다 좀 베풀면서 섬기고 나누는 자가 된다면 좋겠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나눌 힘이 없다고 고개를 떨구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감당하는 대사 임을 자부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일군이 되었으면 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막 10:45)

그 예수님께서서는 주인 된 권리를 행하고 큰 자들이 권위 행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러한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막 10:42~44) 섬김<sup>43)</sup> 에는 섬기다의 말에 모시어 받들다. 힘써 거들어 주다로 설명하고 있다. 이때 창세기 14 장 4 절에 보면 12 년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긴일이 있었다.

그 섬김에는 나의 모든것은 내려 놓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여기 섬기다를 네이브 사전에서 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신이나 윗 사람을 잘 모시어 받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44)</sup> 기독교 대 백과 사전에서는 Severt 라고 말하면서 “종”이라고 동의어로 기록하고 있다. 역시 예수님께서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섬긴다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 섬기러 오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섬기는 선교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윗왕은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면서 왕의 권좌에 잇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것을 본다<sup>45)</sup>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에 따라 다윗은 섬겼던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에서 일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눅 7:20~23) 라고 예수님께서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심 같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주 43) - 성경 낱말 사전 성도 출판사 (1994) P518

주 44) - 네이브 사전 공경하다 돌보다 받들다라고 유의어로 소개하고 있다.

☞ 계속 다음 페이지로

☞

주 45) -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행 13:36~37)

여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참으로 다윗드는 자기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섬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5. 실버 선교회의 활동

“실버”라고 말을 할 때 노인 은퇴자 등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 Silver 로 되어있다. 은, 은화, 백동전, 은 식기류, 은 제품, 은빛의, 은색의,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듯한 등으로 좋은 의미의 표현들이 담겨 있다.

실버라고 하였으니 하얀 머리를 생각할 수 있다. 실버하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은퇴하여 사회의 뒷전에 물러선 자들을 연상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손주나 손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자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 노인들이 활발한 모습들을 그려 보려고 한다.

실버라는 말에 Senior Mission 이라는 말이 더 실감하는 것 같다. 은퇴 후의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삶은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본다. 목회 생활에서 은퇴하고 선교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자는 것이다.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이 적중되는 것 같다.

한편 젊은 나이에 힘있는 그 순간에는 목회 단상에서 모든 힘을 다 투자하고 쓸모없고, 힘없는 이때 힘든 선교의 열정을 가지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은퇴 전까지 열정적으로 갈고 딱은 경험의 바탕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젊어서 못다 한 일들을 해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한 것이다.

실버선교 훈련원이 설립되어 훈련하게 되고 갖가지의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는 곳도 있다. 실버선교회 (SMF, Silver Missions Fellowship, 대표:김형균 목사)의 산하 훈련기관이 바로 그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실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과 파송, 기도와 행정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99년 12월 14일 제 1기 20명을 비롯한 지금까지 67개 교회서 총 10기 241명이 수료했다. 그동안 시카고와 함께 LA, 달라스, 워싱턴 DC, 신시내티,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등에서 실버선교 훈련 세미나를 실시했다.

현재 60가정이 12개 국가에서 실버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많으며, 멕시코와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도 상당수가 나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목회의 경험을 더 하면서 잘 이어져 가는 모습이다.⁴⁶⁾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는 동남아를 겨냥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남미를 겨냥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실버 선교활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시작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좋은 출발이 열악한 환경에 연로한 몸으로 이끌어가는 현장 사역에 건강에 대한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건강 백세라고 말을 하지만 노인의 건강은 한 순간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죽으면 순교자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을 하던 자로서 순교적인 사명으로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군이 되어 간다는 것에는 반대의 이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라고 말을 하게 된 그 나이가 80세 이며 아론은 83세이었다.(출 7:7)



주 46) – 문의:(847)612-8520.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1300

그렇게 시작된 출애굽의 첫발이 모세는 40 년간 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시하심 따라 성막도 만들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120 세에 눈을 감았지만, 그의 시력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힘이 줄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신 34:7)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켜 주심에 순종하는 일만 우리에게 있다.

제 4 장 예수님은 전도대 파송하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눅 16:10) 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파송 받은 자는 작은 일들에서부터 신실한 일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송 받은 자가 사역하는 중에 배척당하고 돌 팔매질을 받고(마 23:37 ; 눅 13:34)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막 13:13)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눅 19:17 ~ 27) 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일이 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사악한 자로 분류됨을 입게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아 죽임을 입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눅 19:10)

무엇을 잃어 버렸고 언제 잃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하였던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상실된 진실이며 그 모습과 형상 이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 버린 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 쫓아 내시던 일이 있었다.(창 3:1~ 24)

죄로 인하여 잃어 버린 것을 되 찾기 위하여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각종 병에서 고생하고 마귀에 붙들려 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고치고 배곯은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다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데 부과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입혀 주신 것은 파송의 원래 취지는 아니었다.

회개하고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첫 외침이 이것이었다.(마 4:17) 역시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왔다.(마 3:2) 고 외치신 것이다.

1. 예수님의 12 제자 파송

마 10:5~14 과 눅 9:1~6 의 기록을 보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글로바 일행들이 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시 달려와서 말하는 자(눅 24:13~35) 는 스승을 잃어버리고 모두 실의에 차있는 자들에게 들려진 부활의 소식이 있었지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확신에 가득 찬 이들의 증언을 말하는 소식에 새 힘과 용기를 부여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일이 진행된 아랍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⁴⁷⁾ 이 사진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

주 47) – 사진을 보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에게 한쪽 눈과 입에 바느질을 당하는 잔혹한 일을 겪었다. 사우디 당국은 이 소녀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술을 영구적으로 꿰매버렸고 한쪽 눈도 바늘로 꿰맸다. 고대의 미개한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만행이 지금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병어리와 눈먼자를 고치신 것과는 반대로 이 무슬림들은 한 소녀를 병어리요 반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이 소녀의 입과 눈을 꿰맬 때 살균된 실이나 보통 실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약품이 묻은 실을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병원균에 감염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잔혹행위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지만 주류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소식은 서방국가에서 극도로 민감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이슬람의 정체**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누군가 전하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의 수고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네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사 40:9)

이제 들든지 아니 들든지(삼하 15:35 ; 겔 2:5 ; 겔 2:7 ; 겔 3:11)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몫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하는 자는 오직 전할 책임만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한 기록을 살펴 보자(마 10:5~15)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고 곧바로 전대로 파송하였다.

*파송 지역을 선정하셨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가지 말라 갈 곳은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역시 같은 내용이다.⁴⁸⁾

*선포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 메시지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게 하셨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다. 나병 환자 (한센병)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셨다. 마귀들을 내쫓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거저 주셨다. 그러니 그저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값없이 나누어 주는 아름다움이다.

*전도 대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돈주머니, 금, 은, 옷, 여행을 위하여 짐 보따리, 덧옷, 두벌 옷, 신, 지팡이 등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 이미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다.



주 48) - * 히브리어 헬라이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 열두명을 예수아께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 하셨다. 이방 나라들의 길로 가지말고 쇼므론인의 성내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축복하라고 하셨다.

*만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떠날 때에 발에 먼지까지 떨어 버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첫 전도대 파송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곧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다.

“회개하라”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외치셨다. 그런데 오늘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설교를 하는 자의 강단 생명을 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즉 천국 복음의 소리는 가만히 뒤에 두고 지상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인본주의 신앙과 기복 신앙이 팽배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할 일들이다.

현대판 전도대 파송과 그 사역은 어떤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들이 있다. 감사 헌금이라는 명 뒤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취지는 사라지는 듯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심에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일이 있음을 보면서 조금 위로는 되고 있다. 이 말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한다.

2. 예수님께서 70 명을 전도대 파송

선교 현장으로 파송 받은 70 인들이 간 사건을 본다.(눅 10:1 ~ 12)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으니 35 팀이 된 셈이다. 전도대 파송자의 심정을 그려 놓았다.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눅 10:3) 고 하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70 인들은 갓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가는 길은 먼젓번 12 제자와 같은 수준이겠지만 파송 자의 간절한 마음 심정이 그려져 있다.

지금도 전도 파송 자는 이러한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낮 설고 물선 곳으로 가는 자의 그 앞길은 전연 알 수 없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을 핍박을 생각하면 암담한 생각이 가득할 것이다.

*전도대 파송하는데 시기는 수확 할 것은 많은데 일군이 적은 때이다. - 지금 일군은 많은 것 같은데 참다운 예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일군이 얼마나 될까? 사례금을 현재보다 좀 더 받게 되면 순간 임지를 옮겨 가는 자들이 개중에 있음을 본다.

*부탁이 있다.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기를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할 밭에 일군을 보내 달라고 청하라고 하셨다.

*준비물이 있다. 돈주머니, 짐 보따리, 신발 등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다. 12 제자 전도대 파송같이 준비 할것이 없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신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화평을 선포하게 하셨다.

*머무는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신다.

*일군은 자기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 먼저 12 제자 파송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첨가되었다.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전하게 하신 것이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묻은 먼지도 떨어 버리라고 하신다.

12 제자 전도대 파송 때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이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병행하게 하셨다. 받아 들이지 않을 때에 행동 역시 동일하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발견된다. 먼것번에는 거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일군이 받을 품삯에 대하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놀라운 이들의 간증이 있다.(눅 10:17 ~ 20) 70 명의 전도대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전도 보고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마귀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간증을 듣는 예수님께서 경고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신다.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눅 10:20)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그 아름다운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 된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앞으로 전도대 파송

예수님은 또 다른 형태의 전도대 파송을 하셨다.(눅 22:35 ~ 37) 두번의 전도대 파송 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And he said unto them, When I sent you without purse, and scrip, and shoes, lacked ye any thing? And they said, Nothing.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지어다.

Then said he unto them, But now, he that hath a purse, let him take it, and likewise his scrip : and he that hath no sword, let him sell his garment, and buy one.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 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For I say unto you, that this that is written must yet be accomplished in me, And he was reckoned among the transgressors : for the things concerning me have an end.”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 할 것을 알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전도대로 가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다. 많이 다른 면을 보게 된다.

준비 과정이 달라졌다.

돈주머니, 짐 보따리,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준비해야 함을 보여 주신다.

돈주머니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다. 짐 보따리도 그렇게 하라. 칼(검)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사라고 하신다.

그런데 칼(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면서 어찌하여 이 무기를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어떤 다른 설명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두 자루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⁴⁹⁾

예수님 공생애 중에 파송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비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서 공생애를 마친 뒤에는 그 준비를 전도자가 일체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검이 무엇에 필요한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하멧교도들이 초기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경을 들고 설파할 때 네가 코란경을 받겠는가? 아니면 칼을 받겠느냐? 하면서 설파하였다는 과거의 기록을 본다.⁵⁰⁾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라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는데 검 이야기가 있다.(엡 6:10~17)



주 49) - 눅 22:38 - 성경 낱말사전 성도 출판사(1994) P44 검(劍) 칼검자를 쓴다. 이는 길고 큰 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어로는 Sword 표기하고 있다. 네이브 사전에서는 무기로 쓰는 긴칼. 주로 칼날이 양쪽으로 있는 것을 이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 50) - '한 손엔 코란, 다른 손에는 검'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을 13 세기 중입 십자군이 이슬람 원정에서 최후의 패배를 당하던 시기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스콜라 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로 알려져 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다. 이때 완전 무장에 칼(검)을 가지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되어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해 보자.

필요한 행정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검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배 고프자를 위하여 빵을 나누어 주고 아픈 환자를 병고쳐 주는 일들 학교를 세워 교육하는 일 등등의 각종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봉사 활동에서는 더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는 혈벗은 몸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눅 24:48) 증인은 본 것, 들은 것, 경험된 것등의 일체를 증거해야 한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해야 한다. 증인이 증인석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만일 증인이 말을 아니 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말을 아니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거짓 증거하는 격이 될것이다.

이제 전도대 파송을 받아 가는 자는 무엇을 보았는가? 무슨 경험이 있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여야만 한다.

만일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하겠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 22:18~18) 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야 할 것이다.

전하여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⁵¹⁾이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하셨다.(요 1:29)

십자가⁵²⁾에서 번제물이 되시었다. 그렇게 죽으신 그분은 3 일 만에 부활하셨다. 40 일 만에 승천하신 그분은 재림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요 5:22)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요 5:27) 하시려 오신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시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요 1:10) 세상이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알려야 한다. (요 1:1~3) 이심을 증거 해야 할 것이다.



주 51) - 구세주(救世主) - 네이브 사전 - 세상을 구제하는 이 어려움이나 고생에서 구해 주는 사람.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the Savior

주 52) - 구경평 저 “십자가상의 7 언” 콤란 출판사(2010) -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 다니, 내가 목 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심

이단과 거짓이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거짓되게 강론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침투해 오는 이단 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단 교리 연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단을 쳐부수기 위하여 이단의 소굴로 들어가자는 것인가? 결코, 그는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이 소리 외에 다른 소리 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은 1960 년도 서울 신문회관에서 탁명한 씨의 사이비 이단 강의에 나도 그 일을 같이하자 라고 결론을 짓고 교회에 다니면서 사이비 이단 강의를 하던 일이 잠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100 분 강의를 끝내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정말 이단 강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강의를 한 것인가?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 이단의 정체에 대하여 구원론이 어찌고 교회론이 어떠하고 그들의 조직과 교회 침투 방법등을 말할 하는데 그 사이비라는 이단을 소개하는 강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100 분이라는 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나 사용하였던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나온 결론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에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딴 소리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단 강의를 끝나는 것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사이비 종교 이단 강의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과학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조명하면서 말을 해 본다.

이 DNA 의 형태는 1953 년 미국의 왓슨과 클릭에 의해서 증명되었으며 '이중나선구조 DNA'는 이때부터 널리 알려졌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기록 문서가 여기 있다.

창세기의 기록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못 믿는 자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 된 것을 못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적도 없는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 하심이 생각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29)

하나님을 못 보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또는 창조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다.

공기를 보았습니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공기이다. 이것을 1~2 분은 참을 수 있지만 10 분 20 분 동안 공기를 마시지 아니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공기는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믿는지요?

분명히 말을 할 것이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있다고 하니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도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찾고 연구하고 밝혔으니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가?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나왔지만 그 삶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 못 보았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보았고 경험하고 그 곳에서 10 개월의 세월을 살았다.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을 보고도 분별 못 하고 판단 못 하고 깨달음이 없었다고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방대하고 창조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미처 알지를 못하였다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받아들이며서 그분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발 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국에서 고등 교육을 잘 받았다면 철저하게 진화론의 사상 때문에 성경을 등지게 된다. 진화론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모두 거짓되고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허위 문서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의 교육을 잘 받은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있다. 매우 다행일이다.

어린이 과학 도서에서 고등학교 과학 시간 까지 몽땅 진화론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힘든 연대를 줄줄 외워야 했다. 비판하고 따져볼 시간도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글을 알기 전부터 수십 년을 이렇게 진화론에 빠져 배우게 된다. 예배당에 가면 창조론을 이야기 듣고 학교 가면 진화론에 빠져있게 되니 혼란해 하는 기독교 학생들이다.

진화론만이 과학인 것 처럼 되어버렸다. 지금 말하는 나 본인도 그 진화론의 교육에 익숙하여 어떤 말 가운데 잠재하였던 그 사상과 말이 나왔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면에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라고 밀어붙이는 타입이었다. 그리하여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아버지께 가서 물어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순간 이것이었다.라는 감탄의 말이 연속이었다.

창세기를 신화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되니 모든 성경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은 그대로 좋게 받아 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말하게 된 자들이 많이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무조건 믿고 보자는 생각도 좋다.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차라리 변론자가 되느니 보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학자는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한다. 교회 목사님은 성경이 증거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말에 신빙성을 두고 판단 결론을 내리게 된다. 목사님은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하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개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보아 진화론 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 읽어 보자.라고 반기를 들어 보았다. 성경의 말씀이 과학이라는 배경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현대 진화론자들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것이다. 46 억년 전에 태양에서 떨어져 온 부스러기가 지구가 되었다. 무기물이 우연한 계기로 유기물로 변하였다. 이것이 원시 생명체라고 한다. 그렇게 계속하여 변화면서 다양한 동물과 인간으로 발전해 왔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 또는 소수의 어떤 생명체로부터 변하여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한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창 1:11)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2) “하나님이 가라사대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5)

인간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여러분과 나는 창조주를 닮은 자이다. 그런데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는 멸시를 두려워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셨다.

마치 가옥에 불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겠다고 뛰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불 속으로 뛰어 드는 자가 있다. 그는 사랑하는 자를 구출하려고 들어가는 자이다. 그는 회복되어야 할 자를 위하여 자진하신 희생양이 되신 것이다. 그는 번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본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멀지 않는 그 날에 다시 오시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박쥐는 처음 부터 박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박쥐는 박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창조론이다. 진화론이 맞다고 가정하고 다음을 상상해 보자.

박쥐의 조상은 무엇이였을까?

무엇이 박쥐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변화되어 온 증거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다.

박쥐가 쥐와 비슷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본다. 이렇게 변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원숭이를 인류의 조상으로 잘 모셔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원숭이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호적이 없으니 호적하나 만들어 달라는 기록 역사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A 라는 것이 B 로 변화되는 연속적으로 변화된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 연속적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진화론 자들은 박쥐가 되기 위하여 수백만년간 조금씩 변해왔다고 말을 한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이 연속적으로 변화여 온 중간 단계들의 생명체가 전 지구에 많이 늘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박쥐의 화석보다 박쥐가 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변화여 온 중간 단계들의 화석이 박쥐 화석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연속적으로 변화된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없다.

오리가 오리 너구리로 변하여 너구리로 진화되었다는 말이 맞으려면 오리에서 오리 너구리로 변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결국 창조주는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오리 따로 오리 너구리 따로 만드신 것이다.

130 년간 세계 화석 학자들이 땅을 파고 뒤지어 보았다.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료는 20 년 전 자료 이다. 육상 척추동물의 화석을 도보를 본다. 거의 모든 화석들을 찾아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결론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은 없었다 이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멸종된 동물들을 많이 발견한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 진화론 자들의 연대에 의하면 5 천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박쥐 화석이 지금의 박쥐 화석과 다른 것이 없다.

진화론자들은 시조새의 화석을 보고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그렇게 진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새가 지금 세상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다는 것은 그냥 멸종된 시조새일 뿐이다.

결국, 진화론자들의 문제점은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를 찾아 내지 못하였다. 연속적으로 변하여 왔다는 중간 단계 화석인 증거 말이다.

이렇게 진화론의 사상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있다. 이 책임이 교회 내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 "점진적 창조론"을 말한자는 교회 밖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⁵³⁾ 이러한 말 이외 자료들을 나열하려면 지면이 모자란다. 본 연구는 성서적인 순회 선교사의 사역과 사명에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는것 같아 이로서 본 장을 마무리하겠다.



주 53) - (창조 과학회 이재만 박사 발표2015년) 점진적 창조론의 주장을 들어 본다. 수십억 년 동안 창조와 멸종의 반복으로 말을 하고 있다. 점진적 창조론자들의 주장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우주는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창조되었다.
2. 하나님은 수십억 년의 기간에 걸쳐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 3.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동물화석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죄악 이전에 발생 했으며, 화석들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멸종의 결과다.
4. 창세기 홍수는 전 지구적이 아닌 지역적 사건이다.

완전히 성경을 오도한 내용이다. 이것을 교회에서 말을 하니 성경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점진적 창조론은 1990 년 초에 캐나다 천문학자인 휴 로스(Hugh Ross)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역사에 대하여 아는 것은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현대 과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진화론적 해석'을 의미한다. '진화론자'나 '유신론적 진화론자'나 공통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이와 같이 '진화론=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글을 읽으면 저자가 진화론을 옳다고 하는 것인지 과학을 옳다고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제 5 장 선교사는 계속 성경 연구해야 한다.

한번 배운 것을 계속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옹달샘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 옹달 샘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 물은 계속 속아 나와야 한다. 그리고 흘러 나가야 한다. 샘물도 퍼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어두면 안 된다.

내가 알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간직하고 보관하면 결국에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계속 연구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선교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듯이 성경 연구하는 일이 새롭게 공급하기 위하여 성경 연구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돕고 협력자를 찾고 있듯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공급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것은 성경연구이다. 기도는 계속하면서, 협력자를 계속 찾고, 새로운 일감을 계속 찾는다면 필히 성경 공부하는 일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 아니하면 평안한 일군이 된다. 차라리 모든 것을 접어두고 관광하고 안식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책임은 냉동덩이 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매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생각난다.(요 5:17)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라.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도 열중하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잘못 이해되지 않기 위하여 연구하는 일을 계속하라. 일점일획이라도(마 5:18)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라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많이 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연구하라.

육신의 빵은 끼니마다 먹지 않는가? 육신을 위한 양식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성경 연구하는 일은 필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 일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그것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여호와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다. 창, 출, 레, 민, 신, 은 완전하다는 말씀이다. Inerrancy 라는 말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 일획이라고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한다.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한 것이냐?라고 따지고 오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 1:1 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기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1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찾아 내려면 수학을 해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수학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수학을 좀 좋아 해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은 수학적으로 풀어 보는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 666 을 본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 시 19:7 을 다시 읽겠다. 창세기는 인간의 지혜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초월한 자가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었다.⁵⁴⁾

히브리어는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언어 이다.^{주 30 을 참조)}



주 54) -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에 논문이 실렸다. 1993 년도에 실린 논문의 내용 중 하나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논문의 제목은 "근본적인 주장" 곧 창세기 1:1 을 가지고 쓴 것이다. 초 자연적인 설계에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 개가 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들이 있다. 히브리어는 곧 숫자와 문자가 함께하고 있다. 헬라어와 라틴어가 역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듯이 단어 마다 그 숫자 값이 있다. 숫자 값이 주어진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필사 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이다.

즉 필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에 숫자 값이 틀렸다고 한다면 잘못 필사된 것으로 판명되게 보여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필사 된것이 정확 한지를 알려면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숫자 값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이 없게 볼수있는 것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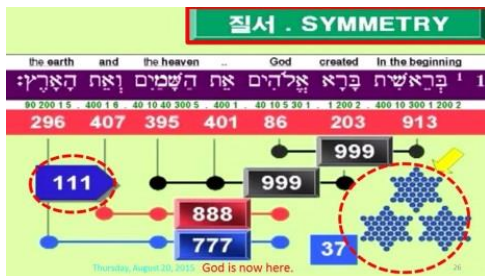
창 1:1 의 말씀을 2 개 또는 3 개를 더하여 보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999 ; 창조하셨다 하늘을 999 ; 하나님 하늘 땅 777 ; 하나님 하늘 그리고 888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런 숫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 수학적으로 이런 구조가 갖도록 만들어 쓰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알아야 하겠다. 여기에 999 - 888 - 777 이라는 수의 기본 수는 111 이다. 111 이 무엇인가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기록된 것은 우연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필연적인 것이다.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해 본다. 똑같은 원을 붙여 놓게 되면 6 개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나가면 정 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질서있는 패턴 속에 숨어 있는 별이 있다.⁵⁵⁾

✿ ✿ ✿✿✿✿✿✿

주 55) -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 별은 육각별이다. 대개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육각별이 이룰 수 있는 별은 작은 것이 13 개 이다. 즉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별의 숫자이다. 이보다 하나 더 큰 다윗의 별이 37 다윗의 별이다. 모든 숫자가 다윗의 별을 이루지는 못한다. 특별한 숫자들만 육각별을 이룰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다윗의 별이 73 이다.

여기에 13 - 37 - 73 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자. 두 번째 다윗의 별이 37 이었다. 37 을 3 번 더하면 111 이 나온다. 다윗의 별을 3 배 한 것이다. 999 또는 888 그리고 777 의 기본 숫자는 111 이라면 창세기 1 장 1 절 속에는 다윗의 별이 가득가득하게 놓여져 있는 것이다. 정 삼각형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666 도 정 삼각형이라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 천지 창조 또는 땅의 숫자의 공통점이 있다.

$7+3=10$ 이 된다.

73 은 "땅을"의 숫자 값이다.

$2+7+0+1=10$ 이 된다.

2701 은 "천지 창조"의 숫자 값이다.

$3+7=10$ 37 은 다윗의 별이다.

10 은 완전 함을 나타내고 있는 수 이다.

이렇게 천지창조에서 땅의 창조를 빼 나머지 수는 1998 이라고 하였다.

666 은 36 번째 삼각 수 이다.

$3 + 6 = 9$ - 36 은 36 번째 삼각 수 이다.

$6 + 6 + 6 = 18$ 이다. $\sim 1 + 8 = 9$ 이다.

$1 + 9 + 9 + 8 = 27$ ~ 땅을 빼 천지 창조의 수 1998 이었다.

$2 + 7 = 9$ 가 된다.

666 과의 관계된 수들이 모두 9 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십진수 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서 의미가 있는것이 분명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반복하여 나오는 수들 가운데 상징성이 있는 숫자들이 있다.

3 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 - 성부, 성자, 성령.

4는 고난의 수, 땅의 수를 말하고 있다. -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 400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면 땅에서 고난과 관련된 수라고 보고 있다.

5는 기적의 수라고 보고 있다. - 떡 5개, 광야에서 5천 명이 먹는 일

6은 불완전한 수에 속한다. - 인간의 수 또는 불완전한 수로 보는 것이다.

7은 천지 창조의 완전 수이다. 천지 창조에 안식일이 빠진 6일은 불완전한 수로 본다.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창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식하는 하루가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다.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 - 노아 방주에 8명이 승선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아 방주에 승선하였던 자만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할례를 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산산보훈은 8 복이었다. 여기 팔복은 모두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헬라어로 나온 숫자 값은 888이었다. 8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9는 완전에는 이르지 못한 수이다. 불완전한 수이다. - 반역의 수 또는 거절의 수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 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9명이었다. 은혜를 거절한 수라고 본 것이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할 때 한 마리를 잃었다. 99마리를 두어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 인간의 계산법은 99마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와야 완전한 것이다. 찾아 돌아와서 100을 맞추어 놓았다. 99로는 불완전하게 있는 것이었다. 그 찾아 왔을 때 완전하였다.

천국에 가려면 완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완전케 하신 후에 입성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완전한 수에 이르게 된다.

666은 9라는 수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부터 하나님 대신 자신이 경배 받는 것이다.

10이 완전 수이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경배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이 목적이다. 사탄이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짜가 진짜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짜 같이 닮아야한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이적 기사도 행사한다. 그리하여 정 삼각형의 36 번째의 정 삼각 수를 닮아낸 것이다. 즉 36 번째 정 삼각형의 속성을 닮은 것은 진짜를 닮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종교가 정통 종교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가짜가 진짜 같이 나돌다 보니 거짓이 참 같이 보이고 참이 거짓 같이 보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결국 "순 진짜 참 참 기름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사탄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완전 하시고 사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지금까지의 말은 해석을 그렇게 한것이지 결코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사야 37:26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바요 상고 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있어야 할 일들을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사역 현장에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리라고 말을 할 것이다. 현장에 바쁜 사역 가운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는가? 라는 답변일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연구 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서 할 수있는 방법을 제시 하려고 한다. 끈기있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연구하는 나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방법은 많이 있다. 아니면 본인이 발굴하면 되는 일들이다.

2. 성경을 다독하라

성경을 다독하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을 자세하게 알려고 집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걸어 보고 큰길에 나서 보고 하는 것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지도를 놓고 아니면 지구본을 놓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 놓고 난 다음 점점 좁혀 가면서 내가 거주하는 이곳까지 온다면 더 확실하고 실감 나는 일일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내 지역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보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성경 전반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점점 세분해 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 다독이 좋겠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틀의 두 책이 있다. 이것을 다시 나누어 본다면 구약은 39 권 신약은 27 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 총 장수는 1,109 장으로 돼있다.

구약은 929 장 신약은 260 장이다. 하루에 10 장씩 읽는다고 한다면 약 119 일이라는 날이 소요된다. 약 4 개월이면 신.구약을 한번 읽는다는 말이다. 읽다 보면 절수가 짧은 장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읽는 것으로 한다면 기간을 좀 짧아지는 것이다.

나는 평균 3 개월 10 일 정도에 일독한다. 이렇게 몇 번만 읽게 되면 신구약의 전체 흐름을 알게 된다.

읽는 시간은 하루에 약 1 시간 정도 투자하면 될 것이다. 하루의 생활 속에 잡담하는 시간이 있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있는 것을 성경 읽는 것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 괜히 혼자 시간 없이 바쁜 것 같이 일하는 것에 온 정신을 모두 공들이지 아니 하였으면 좋겠다.

자동차는 가다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가서 고치느라 쉬지만, 이놈의 세월이라는 시간은 고장도 나지 않고 잘 간다. 그 시간을 멈추게 못 하겠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도 나의 스타일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사건별로 집중하여 정독하라

이 말을 다독하는 시간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따로 읽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창세기 1 장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읽는다고 하자 창조에는 6 일간의 사역이 있고 하루 안식하는 날이 있다. 이것을 함께 한 스토리로 잡았다면 그 내용에 연관되는 말씀을 두 번이든 세번이든 또는 다섯 번도 좋고 완전히 이해되는 그 순간까지 읽기를 정독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건 속에서 밝혀지는 놀라운 말씀과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라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성경 66 권 속 어디엔가 숨겨져있는 것을 찾아 보아라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성경을 외우라

성경을 읽기도 힘든데 외우라고라? 하면서 질문하실 것이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잠이 먼저 오니 성경 읽기는 자장가 인가 봅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다. 불면증 환자가 읽으면 잠이 올 것이니 좋겠다.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니 잠부터 오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읽어보라 그래도 잠이 온다면 잠을 청하여 자고 난 다음에 읽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 읽기가 힘들어 애를 태우지 말고 힘들게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태울 필요 없다. 성경을 외우고 나면 힘들게 성경 읽을 필요 없이 편안한 것이다.

나는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는 중에 들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신학교에서 학사 일정에 성경 외우기라고 한다. 1 학기에 주어진 과제는 정하여진 범위를 외우는 것이라고 한다. 학년을 마침에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히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졸업 때에는 성경 신구약이 외워질 정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것 정말 좋은 수업 과정이다.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별문제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 속에 있으니 좋고, 전등 불이 없는 어두운 골방이라도 필요한 성경을 머리에서 펼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곳도 입을 알고 있다.

성경을 외워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 119:11) “내 마음 속에 숨겼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다”는 것은 암송하여 간직한 것으로 본다.

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겼을까?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크리스천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때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이다. 이 무기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마치 은밀한 장소에 숨겨진 지하 병기고 같은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려고 성경책을 펴들 순간에 이미 그 말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숨겨져 있다가 범죄의 요인이 생기면 곧바로 그 말씀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성경지식을 풍부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는 지식 보다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자는 한발 앞서가는 자일 것이다.

5. 성경 연대표를 그리면서 연구하라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창조는 언제 시작되고 아담은 첫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는가? 라는 역사 족보 이야기 말이다. 그렇게 연대 족보를 그려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게 된다. 국사를 공부하듯이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믿음 뿌리를 찾는 일이 되는 것이다.

6. 성서 지리를 연구하라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림들이 그려질 것이다. 학교에서 지리 공부 시간에 흥미를 느끼는 일들이 세계지리 공부에 있다. 나는 그 지리 공부 시간에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일이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하게 되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 살아있는 사건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7. 성막을 연구하라.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나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성막 공부를 하면서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적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식으로 특수한 사건들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라. 구석구석 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창세기에서 부터 곳곳에 보여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을 연구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외워둔 것이 풍부하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기본 잣대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교리 또는 강론 등이 첫 마디에서 구분되어 진다.

역사 속에서, 역사과학, 지리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이 가득하게 발견될 것이다.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본인이 개발할 수 있다.

단 성경이 주 텍스트로 삼고 본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 4:12)

제 6 장 선교의 현장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자.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언(遺言)으로 남겨진 말씀을 보면서 잠시 우리는 생각해 보자.

1.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遺言)으로 권고하심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라고 경고와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마 28:19~20)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선교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육 사역도 중요한 것이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배운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가르치려면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유언(遺言)하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선교 현장에 계신 분이나 앞으로 가실 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본다.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⁵⁶⁾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같은 질문을...

그러나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나는 베드로 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원한다.

❧ ❧ ❧❧❧❧❧

주 56) - 요 21:15~19 - 베드로 -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7 권 기독 교문사 출판 (1983) P568~620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베드로의 직업과 성품을 보자.⁵⁷⁾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12 사도의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다.(막 3:16 ; 눅 6:14 ; 요 1:42). 그의 아버지는 요나 이었다. (마 16:17) 그의 출신지는 벳세다성이다.(요 1:44)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인 어부로 태어나 잔뼈가 굵어지도록 어부의 삶을 살아온 자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있었고 항상 지도자 격으로 사역하였다.

베드로의 인간상⁵⁸⁾

베드로의 성격은 정열적이고 충돌 적이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확고한 결심의 의지는 있지만, 순간적인 주저함에 어떤 사건의 동요로 실패하는 일이 있었다. 다혈질 적인 사람들의 결점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큰 결점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결단하기를 목숨을 내걸기 까지 하였던 베드로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자 하녀의 말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어떤 하녀가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눅 22:57~58)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말씀하셨던 일이 있었다.(눅 22:34)

베드로는 항상 그 다혈질 적인 성격에 앞장서서 말을 하는자 이었다. 그는 소심한 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라고 질문하시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 요 11:27) 라고 고백하던 베드로 이었다.



주 57) -베드로 -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7 권 기독교문사 출판 (1983) P568~620

주 58) - "성경 낱말 사전"성도 출판사(1994) P384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한날 밤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밤에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마 14:28) 라고 말을 하였다.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걸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가던 베드로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려워 하다가 가라 앉기 시작 한다. 다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던 베드로이었다.(마 1:29~30) 선교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항해하여야 한다. 세상의 힘든 일들을 보고 주위에서 발생하는 험악한 일들을 보고 핍박과 조롱 등을 보면 갈 수 없다. 씩크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혀 갈 때 칼을 들고 휘두를 정도로 정의롭고 용감하였던 베드로가 조롱과 핍박과 법정에서 서게 되는 예수님의 그 환경을 보고 씩크되었던 것이다. 결국,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만류하였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다.(마 16:23) 그리고 변화산에서 황홀한 장면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지어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마 17:4) 짓겠다고 제의 하였다.

지금 그 변화산 아래에는 9 명의 제자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힘든 그 일들을 전연 모르고 있다. 이곳이 이 자체가 좋았던 것이다.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방향에서 일하고 이곳이 은혜로운 곳이고 복된 곳이라고 여기면서 안좌 하려는 선교사님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 40 일 동안에 11 차례 나타나신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7 차례나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신 것으로 보인다.

2. 사도 행적들의 사건을 본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다.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선교사님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에 답을 하기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이 되기를 소원한다.

베드로는 학문도 없고 무식한 어부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없고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행 4:13)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단상에서 말을 하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행 2:1~13) 이렇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한 뒤에 언어 통일이 된 사건을 보게 된 것이다. 역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우리는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 바벨탑 사건을 조명해 보겠다.

“온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1 ~2)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 때문에 서로가 의사 전달에 큰 곤란을 느끼며서 살아간다. 그런데 언어는 창조주의 귀한 선물이었다.

이 귀한 통일된 선물을 범죄한 인간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 당시 삶의 환경이 지극히 아름다웠던 것을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쫓겨 나야했다.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지구 상에 언어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세계에 국가는 약 230 여 개가 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언어는 6,912 개나 된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국에는 55 개의 소수 민족이 있다. 이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 부족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도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힌디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모두 합치면 약 100 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부족이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불편함은 말로 표현 못 한다. 아프리카는 지상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으며, 11 억 명의 인구와 수천의 종족들과 50 여 개의 나라와 2,034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 나라에 살면서도 지방 방언으로 서로 알아 듣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제주도도 여행간 사람이 제주도 본토 주민들의 말이 어느 외국에 온 것 같이 서로 의사소통이 아니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눈짓, 손짓으로 온 몸을 가지고 약간의 의사 소통을 한 오래 전의 일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언어의 혼잡은 인간의 삶에 큰 비극을 초래 하였다. 처음의 삶과 환경이 좋았던 것이다. 만일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한 언어로 살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기도 한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되었는지 알아 보아야 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살지 않고 사탄과의 대화에 범죄한 결과는 동산에서 쫓겨났다.

사탄과 대화한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하기에 사탄의 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하여간 살기 힘든 환경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언어 때문에 서로가 받는 고통은 없었다. 그런대로 살아가던 인간은 죄악이 극도로 관영 함으로 대홍수라는 심판에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다. 다만 홍수로 인하여 다 죽어가는데 방주에 승선한 노아의 가족만 살아 남았다.

그 노아의 가족으로 인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머물면서 사고를 친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다.

일찍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창 9:7) 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놓지 않았다. 선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창 11:4)

이 결과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을 혼란하게 하신 것이었다. 이 역사의 비극은 오늘 현재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이다.

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인간은 그 홍수의 교훈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7~39)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한 것이었다.

과거의 역사이며 기록된 그 사건이 현재도 똑같이 범죄에 처한 인간은 앞으로 심판의 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이다.

역시 바벨탑 사건은 국가 간의 혼란이다. 그 혼란이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일로 비약한 것이다. 이것이 인류와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창조의 처음이 좋았던 것에서 범죄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 보시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꾸며낸 이야기 이다.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 역시 없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이상적인 인물을 만들어 서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과학자들은 고고학계의 계속되는 자료 발견으로 인하여 창세기의 앞부분의 역사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는 혼잡 되었다. 얼마나 혼잡 하였는고 하니 지구상에 언어는 6,912 개의 언어로 혼잡해 진 것이다.

인간이 흠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가진 자들과 함께 흠어지고 말았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배제한 것이었다. 성을 쌓게 되는 그 이유는 흠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이다. 서로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삶을 꾸려 보자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합하여 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흠어지지 말자 이었다.

오늘 인간들의 삶이 이와 똑 같다.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건설하고 인간 지혜의 극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철학과 학문 그리고 과학 발전의 힘으로 살자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이 바벨탑 사건과 다를바 없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 귀한 선물인 언어가 혼란한 물건으로 돌변 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이었다. 장차 인간이 쌓은 현대판 바벨탑은 어떻게 허물 것이지는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창조주는 손을 쓰실 것이다. 언어를 혼란하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언어 자체를 달아 놓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말할 수 없는 동물로 변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구약 시대 사건 이야기이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을 쓰면서 나온 사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이며 그 사상이 독버섯 처럼 번져 왔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았다.

제 1 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정부가 탄생하였다. 그것은 UN 이었다.

바벨탑은 이렇게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자라고 하였다. 땅에 모든 것이 하나로 세워 올리는 그 일을 인간이 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늘이 그러하고 앞으로도 세계 통합 통일 정부가 그것일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의 계획이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인간의 반역과 교만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

앞으로 과학은 놀랍게 발전할 것이다. 단추 하나를 누르면 식사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이 콧노래 부르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스밸브 제어, 집안의 조명 제어 등 원격조정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인간 스스로 해결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인간이 연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길은 하나이다.

사도행전 2 장의 사건이다. 서로 다른 인종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행 2:11)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행 2:1)

바벨탑 사건은 한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다 같이 한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한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한것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었다.

성령이 말을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배도하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언어 통일을 이루어 주실것은 새 하늘과 새땅에 이르게 될때이다.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이시간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체포되어 간 일이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는 일이 있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대답하였다.

“너희 말을 듣는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것 보다 하나님 눈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강력한 항변을 하였다. 역시 베드로의 특유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베드로의 말이 계속된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 밖에 없노라”(행 4:1~20) 는 베드로의 말같이 말하고 사는 자 되자. 선교사는 본 것과 들은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을 말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러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행 1:8)

“여호와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단 위치타위를 들고 다니는 이단 여호와와 증인 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호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 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행 1:1~5 ; 눅 24:50~51 ; 막 16:19) 그렇게 승천 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을 하셨다.

유언(遺言)은 유언(遺言)한 자가 살아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유언(遺言)(히 9:16~8) 임종 때에 자손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one's last words.

즉 죽은 뒤에 법률상의 효력을 낼 목적으로 한 의사 표시를 살아있는 때에하는 것이 유언⁵⁹⁾ 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언약 즉 유언(遺言)은 그분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의 행적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계속되고 있다. 그 일을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선교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행 5:29)

그리고 선교사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각종 섬기는 일을 하심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직접 하는 것 보다 봉사하고 일할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일이 더 좋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기 원한다.(행 6:1~4)

❧ ❧ ❧❧❧❧❧

주 59) - “성서 낱말 사전”성도 출판사 (1994) P848

그리고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앞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따라 온다. 스테반 집사는 역사 설교를 통하여(행 7:37~60) 순교함을 당하였다.

그가 순교하여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보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이러한 극한 일들이 따라온다. 하지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하늘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러한 험박과 환란을 통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된다.(행 8:1~4) 스테반이 순교 당할 때 돌을 들어 치려는 증인들이 자기들 옷을 사울이라는 자의 발 앞에 두게 됨을 본다. 젊은 사울은 위대한 영웅심이 작동되었는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의 주범이 되었다.

그 잔혹한 핍박을 피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등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각처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야 세상 끝이 오게 된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 강림을 기다리는(계 22:20) 성도는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온 세상 땅끝까지... 때로는 선교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어 만남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에 있는 일만이 아니다. 이미 사도행전 기록에서 보고 있다.(행 10:1~33) 곧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 일이 되었다.(행 15:7)

우물 안 개구리가 그 우물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 들어선 것 같다.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자를 알지 못하였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육체적인 어떤 교류가 없던 가운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셨다. 한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을 넓히게 됐다. 사도들이 비록 이것 뿐이겠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행 10:39) 라고 베드로의 말 같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3. 오늘의 사도 행적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선교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가 사역할 현장에서 먼저 일하신다.⁶⁰⁾ 카프카스 사역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본 변화의 모습들 속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계심을 본 그는 말하고 있다. 함께 섬길 동역자들이 손을 내 밀고 붙잡게 된 일 들은 예전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일이 없었던 자들이 동참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 이었다. 이곳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군이 가는 그 곳에는 항상 보내신 자가 먼저 작업을 하고 계심을 확신한다.

미국에서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1988년 이슬람 테러 집단이 팬암(PAN AM) 비행기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이것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비난 하였다. 이 사건은 1995년 미국 뉴욕 타임즈 신문에 1988년 팬암기 사건의 전말을 소개하였다. 그 당시 중동에서 일하던 CIA 첩보원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이슬람 무장조직이 폭파하여 정보원들과 민간인들 200명을 죽였다. 중동 첩보원 모두가 살해 된 것이다. 전쟁 역사상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는 일은 없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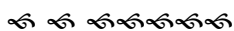
주 60) - "개척정보" 2013년 12월호 P7

그 뒤를 이어 9.11 사건도 테러이었다.이렇게 군사력으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⁶¹⁾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2 위에서 10 위의 나라 군사력을 다 합한다고 하여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옛날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든지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강대국의 위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미국이 어떻게 이슬람의 무장 세력 앞에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원인을 찾아 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963 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 연방 최고 법원에서 종교 자유법을 개정하여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정을 내렸다.⁶²⁾ 판결의 이유는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은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과 헌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성경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나라 이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한 미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일이 된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미국은 급격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첫 바람은 타락의 길로 빠져 들게 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견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 합법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어떤 법령들이 만들어지고 기독교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일들의 결과로 보인다. 한동안 미국은 선교사 파송에 엄청난 재정과 헌신자들의 발 걸음이 이어져 온 미국이 온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가 갔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찾아 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를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옛날 같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을 보고 있다.



주 61) - "시대의 표적" 최바울 저 도서 출판사 펴내기 (2009) P79~95

주 62) - 선교정보 토론토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축하여 집이라"는 글 중에서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이러한 가운데 세계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무슬림 청년들이 일어나고 빈 라덴과 그 친구들이 제국의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미국이 받는 대우라고 말하기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사탄과 함께하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창조주님의 처음의 그 좋았던 것을 잃어 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다. 역시 미국의 현 모습에서 힘든 삶을 살아 가는데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회복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는 틈을 타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판을 치는 현주소이다.⁶³⁾ 아무리 말하고 분석해 본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떠나면 그 성경이 있던 자리에 사탄의 말이 차지하게 되고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삶은 좋았던 것을 잃어 버리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4. 모슬림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심

모슬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다.⁶⁴⁾

이슬람의 신비주의자 이브라힘(Ibrahim)은 스승인 성자가 있었다. 외진 전통 마을에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받고 있는 수천의 추종자가 있었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믿음은 심판 날에 구원 받을 것을 믿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에 대하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어느 날 밤에 빛난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브라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이브라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마을에 가서 이리이러한 마을 출신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리 이리 한 거룩한 사람과 대화하라.

❧ ❧ ❧❧❧❧❧

주 63) - "세계 영적 도해" 최바울 저 펴내기(2010) P151~158

주 64) - "퍼스펙티브스" 2 권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 편저 도서 출판 예수선교단 (2011) P365~368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길도 환상 가운데 보여 주셨다.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자기의 수피 스승이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흥분하였다.

이브라힘은 지독한 폭우 속에서도 65Km 나 멀리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다. 예수님께서 환상에 보여 주신 집을 발견 하였다.

그 이름은 제이콥이었다. 즉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 운동의 지도자 이었다. 대화하는 중에 확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한 그 분이였다.

제이콥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이야기 등등 모든 성경을 들고 이야기 하였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예수님은 1969 년 제이콥 자신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시랏 므스타 킹”이었다.

이브라힘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 이렇게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5.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예수님께서 무슬림에서 직접 나타 나서서 사역하신 오늘의 선교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극도로 반대하는 현실 속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하겠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일로 인하여 민족 문화의 결속력을 약화 시킨다. 그리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들은 예수님만 믿으라고 주장하는 편협자로 보고 있다. 타 종교 또는 타 문화 등등 일체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말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마치 교만하고 제국주의자 같은 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신앙은 자유 또는 종교 자유라고 말할 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은 나의 문제이므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이나 잘 하라고 말할 한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모든 문제는 해답이 될 것 같다.

먼저 선교의 동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겠다.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느 국가이든 정치, 문화 어떤 것이든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⁶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보라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다.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그곳의 민족과 문화 등이 토착하여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 이곳에 와서 이들의 문화 이곳의 전통적인 삶이 동화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를 통털어서 살펴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을 본다. 그리고 약속하심을 살펴보자.

먼저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창 17:5) 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약속과 축복하셨다.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 ❧ ❧❧❧❧❧

주 65) -"처스펙 티브스"제 1 권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 편저 도서 출판 예수전도단 (2013) P51~60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 12 장 2 절과 3 절의 이 두 절 속에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란 말이 5 번이나 나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창 17:7~8 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나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16 에 잘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 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 역사 하시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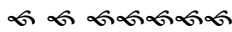
선교 현장에는 선교사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

결코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일터이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마28:20)

앞서 이야기가 있었던(본 연구 P48 위에서 첫줄)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의 6 년에 이루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열매들을 본다.⁶⁶⁾



주 66) -

<p>“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 < 시편 121:1-2 ></p> <p>탄자니아에서 문흥환, 신덕선교사 주님의 도움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은 태클라니 마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한해였습니다.</p> <p>※ 감사한 일들 11월 29일 목요일</p>  <p>1. 세례자 12명에게 일년 과정의 성경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베푼 일(유아 6명) 은 교회 좌측 신학생 분당</p>  <p>2. 본 교회 좌측 신학생인 "이시아" 권도시가 감원 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일과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모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일</p>  <p>3. 주민들의 자원 정체를 풀기 위해 양재, 말하쉬 등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 기술학교의 건축.</p>  <p>직업기술학교 개강예배 (10월 6일) 각반 7명씩의 정예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p>	<p>양재반 국영 전기기술문자 환표 (보건소)</p> <p>말하쉬반 태양열 전기시설(기술학교)</p>  <p>4. 전기가 없던 마사이 마을에 후원자의 도움으로 전기공사가 이루어져 보건소와 기술학교가 전기를 사용하게 된 일과 정전이 잦아 태양열전기시설공사를 하게 된 일.</p>  <p>5. 어린이 학교 도회 졸업식과 4년제 지속되고 있는 영소장학금 전달 (11월27일)21명 졸업 보건소의 환자 진료</p>  <p>6. 보건소가 정부 보건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p> <p>※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실 일: 1. 케세라니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2. 직업기술학교,보건소. 어린이 학교가 계속 기능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3.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015년 12월 10일 탄자니아에서 문흥환,신덕선교사드림</p>
--	--

제 7 장 내가 본 예수님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이시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무능하셨던가? 아니면 능력에 한계가 있으셨던가?

나는 그분을 다시 조명해 본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는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일을 하지 아니할 때 능력을 상실한 자라고 말을 하게 된다.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일하지 아니하면 그 같이 허탈하게 보일 것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아들의 행위에 대하여 꾸중하지 아니할 아버지가 있겠는가? 혹시 무능한 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그 갖추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모습을 본다.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그분을 조명해 본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여기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적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지 아니하셨다. 할 수 있는 능력자가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의문을 던지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였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항상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문둥이를 고치시던 예수님, 죽은자를 살리시던 예수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광야에서 오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열두 광주리나 거두게 하시던 예수님이시었다. 그러하시던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1.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버렸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리셨다.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였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는 내가 원하는 뜻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택하신 것이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에는 내 뜻에 의존된 어떤 능력을 행사하시지 아니하셨다.

2. 자신을 구할 천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3)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들 앞에 천군 천사를 불러 오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3. 자신을 위하여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이 기이 여기더라. (마 27:12-14)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시지 아니하셨다. 3 년 동안 공생애 삶 속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말씀이 요구 되지 아니하셨다.

4. 자신을 위험에서 구하지도 아니하셨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가복음 15:31)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난다. 자신은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위험에서 구하여 달라는 요청도 하시지 아니하셨다.

5.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막 15:32)

많은 이적 기사들이 있었다. 십자가 위에서 뛰어 내리면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6. 죄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은 중단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한편 강도를 향하여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아니하셨다.

왜 무능한 자와 같이 행하였을까?

그는 말씀으로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했노라고 하셔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그가 친히 피를 흘려 주셨다.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의 피를 가지고 희막에 들어가서”(레 4:3~5)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민 35:33)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노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셨다. 그 분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었다.

이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능한 자 같이 행하신 것이다.

감사하신 예수님 응졸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⁶⁷⁾

나는 내가 본 예수님을 그리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그려 본다. 곧 나의 이름이 Paul 이라고 부르게 함은 Paul 의 선교적 사명과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신 그분을 생각한 것이다. 그분을 좋아하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함이라.(행 20:23~24) 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나도 고백한다.



주 67) – “십자가 상의 7 언” 쿨란 출판 (2010) P11

내가 본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에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님 이외는 없노라.

결과는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이 어떤 일로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과 죽임을 당하는 일들만 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모든 자들이 갖기를 원한다.(행 26:29)

바로 그분은 순종하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일이 생겼다.(롬 5:19) 그 한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된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롬 5:12) 죽을수 밖에 없는 자를 찾아 오셨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분을 나는 보았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최선을 다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의 생각하는 전부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하였다.(고전 1:1~2:13) 이러한 바울의 고백 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인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한다.(고전 3:23)

제 8 장 영상 선교 활동 중에 본 반응들

1977년 성탄절에 영상선교의 첫 상영을 하면서 시작된 영상 전도 집회는 지금까지 43년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덧 반세기의 활동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눈물 나는 감동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은혜롭고 감동적인 사건들도 있었다.

시작 처음에는 8mm 영사기를 가지고 활동할 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⁶⁸⁾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교회를 향하여 출발하였다.⁶⁹⁾



갑자기 비가 내리는 순간이었다. 급한 길에 어느 농가에 들렀다. 그 집의 도움으로 비료 부대를 얻었다. 나는 비에 젖는다고 할지라도 영사기와 필름은 젖으면 아니 되겠기에 비료 부대에 영사기와 필름을 입어 넣었다. 비 오는 길을 조심조심하면서 갔다. 이미 약속 시간은 지나고 비는 계속 내리고 길은 아직도 멀었다.

간신히 도착한 나는 물에 빠지 생쥐가 된 기분이었다. 일단 목사님께 염치를 불문하고 갈아 입을 옷을 청하였다. 갑자기 얻어 입은 옷이 몸에 맞는지 아니 맞는지를 따질 사이가 없다.

시작 시간이 늦었지만 성도들은 예배당에 가득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다. 이웃집 불신자들까지 온 상황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구차한 변명한 마디를 하고는 상영하였다.

영상 집회를 마치고 그날 귀가를 못하고 목사님의 서재에서 잠을 청하였다.

❧ ❧ ❧❧❧❧❧

<p>주 68)8mm 영사기와 함께</p> 	<p>주 69)오토바이 50cc</p> 
---	--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하나님 전천후 기동력을 원합니다. 오늘 같은 일로 인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도하던 자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8mm 영사기로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화 필름이외에 더 이상 구입할 수 없다. 16mm 영사기를 구입하면 많은 필름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천후 기동력도 급하지만 당장 장비 구입이 급하여진 것이다.

16mm 영사기 구입을 위하여 또 몸부림치기 시작하였다. 주시는 사례금도 저축하고 활동 할때 받게되는 사례금도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하여 저축하였다. 그렇게 하여 어렵게 구입한 16mm 영사기로서 활동을 확대 하였다.⁷⁰⁾

이렇게 구입한 영사기를 가지고 시골 마을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자동차편이 없는 곳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마을 가까운 곳에서 내리기도 하였다.

길을 따라가면 멀리 돌기 때문에 마을 건너편에서 논두렁을 통과하여 건너가면 불과 300m 정도이기에 들고 가기로 하였다.

한 손에는 영사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필름과 소품을 들고 가는데 약 50m 쯤 가다가 쉬면서 손을 바꾸어 들고 간다 이렇게 가던 길은 30m 가다고 쉬고... 그렇게 가던 길이 100m 쯤 남겨놓고는 쉬면서 하는 말이 예들을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고 오니 무겁기 한이 없군 그러... 그러다가 너무 무거움을 느끼면서 꼴 보기 싫은 물건을 쳐다 보듯이 ...

❧ ❧ ❧❧❧❧❧

주 70) 16mm 영사기와 필름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1. 전천후 기동력

하나님 전천후 기동력은 아직 멀었습니까? 하는 질문의 기도를 하던 자에서 허락된 12 인승 자동차를 교회에서 구입하게 되었다.⁷¹⁾

영상 전도 집회 갈 때 교회 청년들을 동원하여 갔다. 현장에 도착하면 예배당을 중심으로하여 마을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를 하였다. 저녁에는 영상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밤에 귀가하는 일이 되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즐거움과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렇게 힘자랑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닌 장비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

네पाल을 향하여 갈 때에는 그곳에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에 충전한 것을 가지고 전기 없이 약 3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에 걱정없이 영화 상영 할 수 있다.⁷²⁾비교하기 위하여 노트북에 올려놓았다. 왼쪽에는 마우스가 있다. 크기는 10cm x 10cm 높이가 2.5cm 이다. 작은 것이지만 성능이 쓸만하다. usb 가 있어 셀폰 충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HDMI 가 있어 컴퓨터에서 들어 올 수있고 셀폰에서 입력할 수 있다.

❁ ❁ ❁❁❁❁

<p>주 71) 12 인승 포터</p> 	<p>주 72)</p> 
---	---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2. 상영 중단된 사건

이렇게 집회하는 중에 영화를 통하여 본분들 가운데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한날은 중등학교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영화를 상영하는데 내용 중에 제주도에서 물래방앗간에 있던 목사님 앞에 찾아온 한 아주머니가 윗도리를 벗는 장면이 있었다. 학교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상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유는 풍기 문란이란 한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의 장면을 보았다면 그것이 아니데 말이다. 단호하게 중단명령에 중단된 일이 있었다.

실상은 종교 영화인 것을 알고 내려진 것이라고 본다.

3.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듣다.

한번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상영 하는 날 온 교우들은 통곡의 눈물로 감상하는 일이 그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못 판 위로 걸어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주 목사님과 그곳에 교우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게 된다. 못 판위를 다 걸어 가시는 것을 본 일본 형사는 경찰서 서장실에 들어 갔다.

그곳에 있던 노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질문 한다.

“당신들의 하나님과 주 목사의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까?”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성도는 하는 말이 신앙을 가지려면 적당히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여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고백함을 들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한 편만이 아니다.

“낮은데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어떤 어려움에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자는 간증도 들었다.

4. 영상이 온 세계에 전파되다.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 낮은데로 임하소서, 하늘가는 밝은 길, 회개한 야쿠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순교자 토머스 모어, 예수 천당 최권능목사 등등의 영화를 온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올려 놓았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조회 수가 2016년 1월 28일 현재 59,478 회나 되어있다. 아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누군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것이다. 조회 수는 이정도이고 시청한 곳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러시아,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알리리, 가나,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다마 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수단, 프랑스,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요르단,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프타니스탄, 파키스탄, 오만,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라크, 이스라엘 등지에서 시청한 기록은 유튜브 분석결과를 본거다.

본 기록은 2015년 12월 29일 ~ 2016년 1월 25일 통계에 분석 결과이다. 불과 30일간 통계이었다.

나는 알지도 못한 나라들이 그곳에서는 내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많은 곳에 찾아 갈 여유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나의 영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시청한 기록을 보면 나는 한순간 작업한 것이 전부이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시청하고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들은 간증들만 하여도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였다.

5. 보기 힘든 장면 뚫러지게 보라

멕시코 선교사로서 영상을 통하여 사역하던 가운데 있던 일이다.

멕시코에 가면 스페니쉬로 된것을 가지고 간다. 네팔에 갈 때에 네팔어로 된 것을 가지고 갔다. 지난번에는 17 편의 영화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영상 선교 활동하시는 Sanjip 목사님께 드리고 그 외 몇 분들에게 드렸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그린 영화를 상영 하였다. 상영 시간은 2 시간을 투자한 것이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뒤에 그 영화를 다시 상영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하는 말이 지난달에 그것을 보았는데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니 한마디로 No 이었다. 지정한 영화를 지정한 날짜 그 시간에 영화 상영하였다.

영화를 감상하는 분위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간히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떤이는 그냥 흐느끼는 신음 소리도 있다. 어떤 이는 눈물이 온 얼굴을 적이었다.

영화를 마치고 차를 한잔씩 마시면서 서로 나누는 담소 속에는 나를 울리고 말았다.

이 영화를 보려고 가는 자에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뒤를 돌아 보라고 주위를 주면서 극장으로 향하는 일을 보았다.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렇게 영화를 보려면 무엇하려고 돈을 들이면서 극장표를 구입하고 가는가? 차라리 가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에 토를 달던 나 이었다.

막상 내가 보아도 편안하게 보려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2 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 연속되는 장면들이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한 채찍은 끝 부분이 갈고리가있는 노끈의 채찍이다. 한번 후려치고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을 시나리오를 쓰고 각본하고 연출하는 자 감독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장면을 외면하면서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보라고 만든 것이다.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런 장면을 외면하고 보기 편한 장면만 보기 위하여 간다는 것 부터 나는 싫었다. 오히려 뚫러지게 보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간 내가 그곳에 있어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라.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은 외면하는 행복하고 평안한 것과 축복된 것만 원한다면...

역시 신앙 생활에 보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것은 피하고 편한 것만 취하겠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정면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 속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라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 영화 감상에 진지하고 짜릿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이 영화는 그렇게 볼 때 은혜가 될 것이다.

평소에 말을 그렇게 하던 나는 내가 하고져하던 말을 이미 오늘 영화를 감상하던 자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 그 말은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인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족한 전율이 흐른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흐느끼는 감사의 눈물을 왈칵...

때로는 영화 줄거리의 흥미에 진지함을 가지고 보기도 하였지만, 이 영화는 그것이 아니었다.

비록 대화의 내용 말은 못 알아 듣지만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된다.

자막이 스페니쉬로 있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

영화 상영할 때마다 매번 이런 감동적인 반응이 있지는 않지만 간간히 맺어지는 감동적인 반응이 있기에 영상 선교의 보람을 가지게 된다.

6. 네팔 선교지 이야기

2014 년도에 네팔을 향하여 갔었다. 벌써 네팔을 두 번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다. 2 박 3 일을 오직 보행으로 가는 선교지 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는 일이 즐겁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다. 가다가 힘들어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 좀 쉬는듯 쉬다가 또 가야 했다.

“함 집사님 먼저들 올라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뒤 따라가리이다. 가다가 정 힘들면 집사님께서 되돌아오는 길에 날 만나 내려 가면 됩니다.”

나의 이 말에 집사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한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일하다가 힘들어 쓰러지는 소 주저 앉으면 눕게 된다. 그러기 전에 바늘을 가지고 찔러서라도 일어서게 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아서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에 아이고 이 자리에서 “인고기” 되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 하겠구면 하면서 또 갈 길을 갔다.

힘들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조금 전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이 몽땅 산바람에 다 날아 갔나 어디로 간 것을 모르고 잊어 버렸다.

영화 한 편을 상영하는데 낮 시간이라 화면이 좋지 못하다. 좀 어둡게 하기 위하여 창문을 가리었더니 바람이 통하지 아니함으로 더위가 시작되었다. 좋지 못한 화면에 더위로 인하여 땀으로 맥을 감는 수준이다. 나는 감당 할 수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 모든 분들은 진지하게 영화 감상을 하고 있다.

나의 인내력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개척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가자는 것이다.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물었다. 가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답은 간단하였다. 계곡을 내려가는데 1 시간 30 분 그리고 올라가는데 2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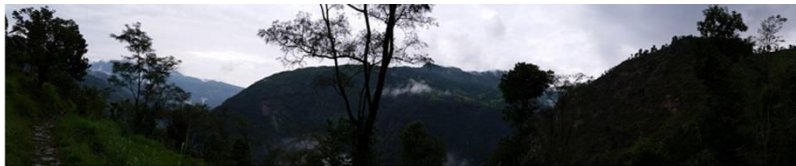
이 말을 듯 순간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던 힘든 순간들이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다. 곧 나는 손을 휘저었다. 이곳까지 오는데 힘들었던 생각이 내의 온 몸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나는 못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한 시간 행보 길은 나는 1 시간 40 분을 가야 하는 실력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곳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밤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나는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네팔에 간다면 히말리아 산 등산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오지 산골에 교회당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이곳에 예배당 건물은 함 종남 집사님께서 푼돈을 모아 아끼어 보내준 것으로 건축하게 된 것이다.⁷³⁾

~~~~~

주 73)



목적지 정상에서 내려다 본 경치



우리의 집을 이렇게 이고



예배당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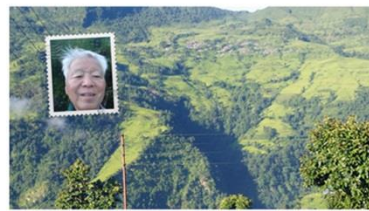
도착하여 기념 사진



예배당에 모인 성도



계곡을 건너는 출렁 다리



개척하고 싶은 마을



예배당에 모인 성도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네팔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그만하자 2013 년에 한 차례 2014 년에 두 번의 힘든 경험으로 막을 내리자 라고 점을 찍었다. 그러데 함집사님께서 네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싸래를 저었다. 그 힘든 일들이 내 눈에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거절 같은 말을 한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난번에 만족하게 못한 일을 다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만일 이번에 간다면 먼저 행보대로 먼저 가시고 나는 길을 아니 따라 가도록 하자 그리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설상가상으로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현지인 목사님께서 네팔 소식을 전하면서 안부를 물어 온다. 그리고 카트만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의 소식이 연속 짜고 오는 것 같이 온다. 나의 마음은 힘들었던 지난날들이 사라지고 가자 네팔을 향하여, 라고 마음이 굳혀진다. 그렇다면 네팔에 가져갈 영화 15 편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솔라라이트도 준비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장비를 마련하고 자료 수집을 할 때 마다 알지 못하는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나를 내조하는 내자는 빈궁한 삶에 보탬보다 선교 사역에 투자되는 것이 아낌없이 밀어 주는 힘이 있기에 감사한 일들이었다.

반세기 동안 영상 선교 사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영상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이다.

순회 선교사는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있다.

여행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곳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하면 그곳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새로운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그들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외로운 것 같지만, 선교지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하여 사귀어 있다. 외롭지 않다. 항상 개척의 심정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과 교제하는 일 속에 미래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본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제 9 장 결 론

본 연구의 글이 나의 선교지 순방 선교 보고 같기도 하고 나의 신앙 고백 같기도 하고 쓴소리를 나열하여 놓은 것 같기도 한 것이다.

쓴소리하는 나는 나의 자신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순간이 되기도 한 나 이었다. “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롬 2:1)

이제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을 말하여 온 것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제목을 선정하는 작업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고뇌를 같이해 온 지도 교수님의 노고를 깊이 생각하면서 수많은 고충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를 뒤로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서 무엇인가 아쉬운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교 현장에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 새로운 일감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필수적인 것이 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마 4:4)

이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일은 비 크리스천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선교사의 손에는 필수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물로 들려져 있다. 그리고 선교사는 보낸자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 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 왔느니라.” (요 6:38)

누가 선교지를 향하여 가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따라 갔다면 그 보내신 그 분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는 누가 보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히 구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8~19)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었다.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 기도는 지금도 선교 현장을 향하여 달려간 자와 앞으로 갈 자들에게 해당되는 기도이다.

보냄을 받은 곳은 세상이었다. 그 세상에서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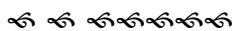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게 된다. 강단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단 여기에서는 설교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청중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다.

설교하는 자는 내가 어떤 노선에서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 청중은 독이 되기도 하고 영의 양식이 된다. 설교의 본질을 말하던 칼 바르트의 저서 “설교의 본질과 실제”라는 제목에 쓰인 내용에는 신학적이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면이 있다.

먼저 칼 바르트의 생애와 그 책을 소개 하고자 한다.<sup>74)</sup>

칼 바르트(Karl Barth, 1886 년 5 월 10 일 ~ 1968 년 12 월 10 일) 은 스위스의 개혁신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예수를 도덕적으로 모본을 보인 인간으로, 성서를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의 기록이요, 윤리적인 지침서로 이해하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다.



주 74) - 칼 바르트(Karl Barth)“설교의 본질과 실제” 실존주의 철학자 하르낙의 영향을 받은 자이다. 학문 중에 학문과 실천에 갈등을 느낀자이다. 즉 학문과 실천에 맞지 않아 이질감이 일어난 것이다. ☞ 다음 페이지로 연결

☞ 내가 배운 학문을 현 실천에 적용함에는 갈등을 느낀 자이었다.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 어그스틴이나 마르틴 루터의 사상이 담겨 있지만 Kohilrigge와 키헬크의 사상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바르트가 평생 강조한 신의 주권 사상은 우리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성경에 계시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을 넘어 서는데 문제가 된다. 신학의 새로운 신학운동으로 변증법적 신학과 신학자 바르트였다. 사실이 객관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바르트는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오도하는 말들을 계속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행위는 예외 없이 은총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비 은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은총으로 나타나신다. 따라서 비 은총도 은총 이외의 것으로 인식 될 수 없다. 결국, 바르트는 종말론의 최후 심판의 사상이 탈락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구원 받는다는 사상으로 나왔다. 개혁주의 선택론을 지워 버렸다. 최후심판의 대 종말론을 흐리게 하였다.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 받았는데 누구에게 심판이 있단 말인가? 라고 바르트는 말을 하고 있다.

☞ ☞ ☞☞☞☞☞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신학적인 성격을 신정통주의라고 부른다. 라고 위클리 백과사전에서 말을 한다.

주에서 말을 한것 같이 바르트는 결코 옳바른 신학자이며 개신교 목사라고 볼 수 없는 자이다. 성경을 오도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전능 하심을 부인한 자 이다.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다. 한 신학자는 “칼 바르트가 일반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였다면 아마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자유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통주의도 아니다. 라고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된 글을 읽게 된다.<sup>75)</sup>

칼 바르트의 “설교의 본질과 실체”에 대하여 비판한 글이 있다.<sup>76)</sup>

지적인 9 가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 ☞ ☞☞☞☞☞

주 75)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69127/20131225/칼-바르트-그는-왜-한국교회에서-논쟁적-신학자인가.htm>

주 76) - 박근용 역 Karl Barthdml 설교의 본질과 실체 월간 목회 1981 년 6 월호 P236~290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1) 설교는 계시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전적으로 새롭게 향하여야 한다. 자신을 갱신시켜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설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회 적이어야 한다.- 설교의 장소는 임의의 장소가 아니다. 세례, 성찬, 성서에 의하여 지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 3) 신앙 고백에 기초해야 한다. - 들을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다.
- 4) 임무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 설교한다는 것은 항상 소명의 일이다.
- 5) 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 설교자는 약속 대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놓고 비록 자신의 무력, 무능력을 알고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하명된 명령이 있는 까닭에 희망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로 할 수 있도록 허락 되어진 성스러운 것이다.
- 6) 성서적인 것이어야 한다. - 설교자가 어떤 말로서 연유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장소가 되든지 형식과 내용은 성서적인 강해가 되어야 한다. 진리가 실제적으로 말씀 돼야 한다.
- 7) 독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설교는 인격적인 회개와 감사로서 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설교자의 자유로운 말이다.
- 8) 회중에게 기도되어 있어야 한다. - 설교는 공백 장소에서 수행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대방을 설교의 메시지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말씀을 받는 청중의 그와 같은 구체성 때문에 설교로 인격적으로 관계 되어야 한다.
- 9) 성령에 의하여 외칠 것이다. - 설교는 겸손과 근엄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설교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인가에 따라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설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선교사는 확실히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로서 외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경 해석자가 비단 칼 바르트 혼자이겠는가? 수많은 신학자 목사들 가운데 잘못된 신학자 목사들로 인하여 성경이 오도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말들을 하면 듣는 자들은 명성을 얻고 있는 자들의 말이 옳은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오늘 교회 내에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사탄이 가장 즐기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다시 한번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지 자신을 검토하는 기준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어는 누구의 말이 아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알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 22:18~19)

-아멘 -

## 편집 후기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 학생이 된 기분은 청춘이 되었다는 마음과 푸른 꿈의 날개를 펴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듯하는 기분이었고 이제 마지막 흔적을 남기게 되는 연구 논문을 쓴다는 기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은지? 하지만 현실이구나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나의 모든 시간이 이 논문에 집중되면서 이것 이외의 시간은 모두 정지된 것 같았다. 잠을 자다가 이것 생각하면 잠이 들지 않았다. 이것에 온통 집중하였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엇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렇게 몰두하던 생각에 한줄의 말머리가 잡히면 그대로 펜을 잡고 정신없이 기록해 갔다.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것에 몰두하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희열에 가득 찬웃음과 함께 만족해하던 순간도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그대로 정차하고 메모를 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오늘에 이런 모습으로 탈고하는 순간을 맞이하여 마지막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나와 대화 가운데 무례한 나의 행동에 이유도 모르고 당황해 하셨던 분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중간에 갖가지 생각에서 나를 혼란하게 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위대하게 알아주는 일이라도 되는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편하게 생활할 생각을 하지....

등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속담 한마디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가다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말에 다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하였다.

한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은즉”(딤후 4:7)의 말씀이 나에게는 다르게 읽혀졌다.

네가 이 힘든 일을 다 하고 너의 할 일을 마치려는 그 노력에 너를 지키니...라고 들려 읽혀졌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필요한 저에게 자료 수집하여 제공해 주신 박은숙 권사님의 정성스러운 그 마음에 깊은 감사를 한 아름 드린다.

그래 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은 전진을 다 하여 가자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펜을 잡은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편집후기에 마지막 글을 위한 펜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논문을 지도해 주시던 교수 윤건상 박사님의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을 잊을 수 없다.

마지막 글 들을 교정해 주시겠다고 자원하시는 박은숙 권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수고는 무엇으로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순간순간 내자의 애처로운 동정의 눈길에 고마움을 하나 가득 담아 본다.

특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다. 그분들의 기도가 더욱 힘이 된 것은 말로 못다 한다. 멀리 한국 수원에서 조병기 집사, 박경미 집사, 에스더 김 목사, 일본에서 이명희 선교사, 탄자니아에 문흥환 선교사, 문신덕 선교사, 중국에 박바울 선교사, 네팔에 정 도용 선교사,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미국에 사랑하는 딸 세로, 아들 가로, 며느리 미경, 이승철 목사, 이숙영 사모, 임영호 목사, 최순자 권사, 화요 찬양 인도 팀에 박은숙 권사, 그리고 9 명의 찬양 팀원, 윤건상 목사, 윤 에스더 목사, 안대진 목사, 류창열 목사, 홍성화 목사, 안나 리 사모, 의사 오 크리스티나 집사,

이재삼 목사, 이명애 사모, 그리고 헬렌 구 나의 내자를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이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을 보게 된 것이다.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2016 년 2 월 일

논문 필자 Paul G. Ku (구경평)

## 참고 도서 목록

- ☞ 기본 텍스트는 성경(구약과 신약) -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조 성경전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2011)
  - ☞ 히브리어 & 헬라어 직역 성경
  - ☞ 개역 성경
  - ☞ 개정 개역 성경
  - ☞ 복음 기독교 신문 2011 년 6 월 28 일 자 기사
  - ☞ 정장복 Clyae Roid "설교의 위기"(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P.4
  - ☞ 전가화 "설교 학적 두 개의 갈림길과 그 과제"(감리고 신학대학 진학과 1982 년 8 월호)
  - ☞ 위클리 사전 -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 년 ~ 1791 년)는 오늘날 감리교를 설립한 성직자이다. 현재는 감리교만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에서도 비록 웨슬리의 직무를 파면했으나 그의 회심일인 5 월 24 일을 기념한다. 그는 감리교 운동을 선도한 지도자, 목사로서 감리교의 창시자 동시에 직무 파면된 영국 국교회 성직자의 신분이 유지되었다.
  - ☞ 인명 사전 - 칼빈은 루터보다 20 년 후에 출생했다. 그는 프랑스의 소도시 노용에서 출생. 칼빈이라는 이름은 코방( caubin )이라는 프랑스 성을 라틴화된 칼비누스(calvinus)에서 다시 프랑스화된 것이다. 부친은 당시 노용의 주교관에서 봉직하고 있었다. 14 세 때에 파리대학에서 신학 공부. 부친의 권유로 신학을 중단하고 법학을 공부. 이 기간에 당시의 인문주의적 교양을 배웠다. 에라스무스에게 정확한 저작을 위한 정열을 배웠고, 몽테뉴에게는 문필의 훈련을 쌓았다. 1533 년 파리대학의 학장인 니콜라스 코프의 취임연설 원고를 초안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파리의 성직자들을 공격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신학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칼빈은 이리저리 방랑생활을 하다가 스위스의 바젤에 도착했다. 바젤에서 칼빈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다.
- 1536 년 제네바에서 뜻하지 않게 파렐을 만나 종교 개혁에 참가하게 되었다.1542 년 신정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 규칙에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선이 방법과 교회의 운영 방법까지 규정했다. 여기서 근거하여 장로교회가 형성되었다. 슈네브는 오랫동안 유럽에 있어서 개신교의 아성으로 군림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주석가였고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도 탁월했다. 칼빈이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체계화 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 루터교 - 위키백과 사전-루터교회 (영어: Lutheranism 또는 Lutheran Church) 또는 루터교는 16 세기 마르틴 루터의 사상을 따르는 개신교 교파이다. 루터교회는 스스로 개신교의 장자 또는 효시임을 자임하고 있다.

☞ 침례교- 나무 위키 사전 -침례교는 종교개혁이 태동된 이후의 17 세기 개신교 신자들 중 보다 급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교회가 혼합사회가 아닌 신자들만의 순수한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세기 영국에서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확산되었고 이는 점차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침례회는 유아세례를 부정했고 이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와 상충되었다. 침례회는 불세출의 설교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목사와 같은 설교가들을 배출하면서 점차 영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그 세력은 장 칼뱅의 '예정설'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선교가 필요 없다는 기존 영국의 선교사들에 반발, 세계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세워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선교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구세군 - 홈페이지에서 -구세군(救世軍, 영어: The Salvation Army)은 1865 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한 개신교의 한 교파이다. 성직자를 사관, 신학교를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 또는 군우라고 부르는 등 군대식의 조직을 가진 특색있는 기독교이다. 기독교인은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윌리엄 부스의 사상에 따라 구세군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사회봉사 모두 실천하고 있다. 구세군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므로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 구경평 저 "광야의 망치소리 정소리" 쿨란 출판사(2010) P119

☞ 정선기 ; 한국교회의 두가지 실상 도서 출판 아가페 198 기독교 문화 11 월호 P45

☞ 강의된 주소임 성경과 과학 59♥특별하게 기록된 시편 119 장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다. <https://youtu.be/sUWmP5gz6U>

☞ Ronald I Parsons: "Lay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cation Boston University 1966 P184 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박사과정 연구 중에 발견된 것이다.

☞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관주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 2011 년 제 2 판 인쇄

☞ 동아일보 2002 년 2 월 21 일자 신문 기사

☞ 인디언 석판 그림

☞ 1983 년 기독교문사 발행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2 권 P1253

☞ 1983 년 기독교문사 발행 기독교 대 백과 사전제 8 권 P1511

Paul G. Ku(구경평)선교학 박사(D.Miss)학위 논문 "성서에 따른 순회 선교사의 사명과 사역"

- ☞ 1994년 성서 낱말 사전 성도 출판사 P356
- ☞ 기독교 대 백과사전 기독교문사 발행 (1983년) 제 8권 P1096
- ☞ "히브리 헬라어 직역성경" 말씀의 집 (2015)
- ☞ 선교칼럼 "값진 잔소리" 쿼란 출판사(2010)
- ☞ 박아론 저 "새벽기도 이야기" 기독교 문서 선교회(2015)
- ☞ "값진 잔소리" 쿼란 출판사 (2010) 구경평 저
- ☞ 네이브 사전
- ☞ 문의:(847)612-8520. [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1300](http://www.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1300)
- ☞ 구경평 저 "십자가상의 7 언" 쿼란 출판사(2010)
- ☞ 창조 과학회 이재만 박사 논문집 발표(2015년)
- ☞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에 논문. 1993 년도에 실린 논문
- ☞ 기독교 대 백과 사전 제 7 권 기독교문사 출판 (1983) P568~620
- ☞ 칼 바르트(Karl Barth)"설교의 본질과 실제"
- ☞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69127/20131225/칼-바르트-그는-왜-한국교회에서-논쟁적-신학자인가.htm>
- ☞ 박근용 역 Karl Barth의 설교의 본질과 실제 월간 목회 1981 년 6 월호 P236~290
- ☞ "개척정보" 2013 년 12 월호 P7
- ☞ "시대의 표적" 최바울 저 도서 출판사 펴내기 (2009) P79~95
- ☞ 선교정보 토론토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건축하여 짐이라"는 글 중에서
- ☞ "세계 영적 도해" 최바울 저 펴내기(2010) P151~158
- ☞ "퍼스펙티브스" 제 2 권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 편저 도서 출판 예수 선교단 (2011) P365~368
- ☞ "처스펙 티브스"제 1 권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 편저 도서 출판 예수 전도단 (2013) P51~60